

원양산업

제 1131 호

(2021년 3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원양어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
- 강화되는 방역지침, 원양어업 피해 눈덩이 5 /
- 협회, 2021년도 정기총회 서면 결의로 대체 6 /
- 3월 7일은 「참치데이」, 영양가득 참치 저렴하게 즐겨요 /

■ 협회 2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8 /

■ 명태 요리 만들기

(연두부명란젓찌개)

6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1년 2월 보고 내용 11 /



해외수산물정보

■ 참치어업 동향

- 1월, PNG 수역 참치 풍부 12

- WCPFC, 선원의 더 나은 노동 기준 협의 시작 22
- 일본 신조 연승선 진수 8
- 영국 소매 업체, MSC 인증 참치 점유율 크게 줄임 22
- 방콕 가다랑어 가격 상승 가속화 4
- 일본 1월 참치 수입, 지난해 수준 4
- 조업 호전으로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소폭 하락 52
- 타이 유니온, '25년까지 참치 공급망 투명화' 약속 52
- 중국, 에콰도르 EU 참치 로인 시장 공급 확대 62
- 일본 대형 눈다랑어 시세 700 엔 유지 72
- 인신매매 관련 테스트 포스, 미국 참치 어선 리포트 발표 82
- 일본 참치 살코기 부족 8

■ 오징어어업 동향

- 오징어 낚시줄 발전, 어업 서포트 88
- 일본 신선 오징어 저인망 TAC 소진으로 반감 98
- 일본 살오징어 사상 두 번째로 흥어 13
- 오징어 관리에 국제 대화를 2

Contents

■ 명태어업 동향

- 알래스카 생산 문제로 명태 가격 상승 37
- 지난해 미국, 알래스카 명태 소비 감소 37
- 러시아 정부, 어업 분야 국가 통제 강화 추진 43
- 러시아, 명태 공급과잉 대처 위한 과감한 조치 고안 43

■ 꽁치어업 동향

- '21~'22년 북태평양 꽁치 TAC 40% 감소 67

■ 일본 수산 동향

- 신상품 '생선 햄버거' 13
- 일본 올해 업무용 냉동식품 시장 6% 성장 전망 73
- 일본 가다랑어 선어 양륙량 회복, 고등어 2배 83
- 러시아 명태, 일본에 임시 보관 88
- 日 고등어 2020년 수출 베트남이 최대 시장 93

■ 각국 수산 동향

- 노르웨이, MSC 대안으로 새로운 어업표준 개발 04
- 태평양제도포럼에서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5개국 탈퇴 04
- 아이슬란드 대구 가격 급락 11

■ 쉬어가는 난 (詩)

- 그 저녁바다 <이정하> 24

■ 국내 수산 뉴스

- 2021 해양수산전망대회, 부문별 전망 37
- 해수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21~'25)' 발표 44
- 원양산업노조 신임 위원장에 박진동 사무처장 선출 44
- 다양한 선박검사 법령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54
- 원양선박 선원 여러분, 아플 땐 원격의료 받으세요 61
- 올해 총 250억 원 규모 수산펀드 조성한다 64
- 선원노련, "선원의 일상회복에 역량 총동원하겠다" 74
- 국적부원 일자리로 취업난 극복하세요! 74

원양어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원양어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지난 3월 1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이규선 과장(주제) 외 2명, 업종별 위원장사, 우리협회 최경삼 경영지원본부장, 신현애 해외협력본부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양수산부가 원양어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양업계는 해양수산부에 각종 애로사항의 개선을 건의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선원 편승 교체 시 편승 선원과 운반선 동승자의 자가격리, 편승 외국인 선원의 PCR확인서 및 비자 제출 의무 등 선원 교체 규제 사항 완화, △베트남 선원의 귀국이 요원한 상황으

로 전세기 등을 통한 정부 지원, △외국인해기사 제도 개선, △연안국과의 ODA 사업 확대, △포클랜드 정부와의 정부 간 교류, △포클랜드 수역의 외국계 운반선사 독점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 △원양어선 안전펀드 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조건 완화, △MSC 인증 지원 방안 검토,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 포함, △불법어업 의심선박 단계에서도 조업 불가 등 과도한 규제의 완화 등이다.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이규선 과장은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의 대부분이 타 부처 또는 타 과와 협조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원양산업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업계에서는 각별히 안전에 신경써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업계가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화되는 방역지침, 원양어업 피해 눈덩이 원양어업 현장을 무시한 방역지침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양업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원양업계는 방역당국이 원양어선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방역지침을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원양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산물 소비침체로 어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선원들의 14일간 임시생활시설 격리 의무와 높아진 항공료 등 각종 부대비용이 점점 증가해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원양어업은 연근해 또는 소상공인들처럼 정부의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4일 질병관리청의 검역대응 지침에 따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국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각 지방 검역소에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이유로 타 원양어선과 운반선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선원들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조업수역 인접국 국경 폐쇄, 항만 편승승객 입국 불허('20.5.28)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로 선원교대 등이 더욱더 어려워졌다.

국내 출항 후 해외에 입항하지 않고 장기승선 중인 외국인선원은 편승으로 국내 입항 전 PCR검사가 불가능함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로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다. 또한 검역소에서는 방역지침을 근거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운반선 및 타 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선원교대 등 목적으로 하선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조건으로 하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그 동안 편승을 통해 선원교대를 해오던 원양업계는 정상적인 조업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또한 원양어선에 승선 근무하던 외국인 선원은 조업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편승 입항이 필요할 시 식별 가능한 부상 등에 한정하여 치료 입국이 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내상 또는 질병이 있는 외국인 선원은 입국이 어려워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해 외국인선원들의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외국인선원의 편승입국 관련 문제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해양수산부, 법무부, 질병관리청에 지침 완화를 건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우리 협회에서는 질병관리청에 모든 내외국인에게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 필요한 방역조치일지는 모르지만 원양어업 현장에서 이행할 수 없는 지침을 정한 후 위반하면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방역지침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방역지침에 맞게 국적 원양어선 및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외국항 입항 및 외부 접촉여부 확인 가능함을 설명하고, 원양어선 및 어획물운반선의 편승입국 내외국 선원에 대하여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예외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격리면제 대상조건을 갖춘 국적 원양어선 및 어획물운반선이 해상에서 환자 이송 또는 선원교대 후 14일 이상 항해 시 격리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협회는 국회 등을 통해서도 이런 외국인 편승입국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부상 외국인선원에 대해 제한적인 조건으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외국인 선원 인권 문제와 원양 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협회, 2021년도 정기총회 서면 결의로 대체 신현애 이사 상무 승진, 해외협력본부장으로 선임

우리 협회는 2월 25일에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정기 총회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당초 이날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 결의로 대체했다.

협회는 사전에 각 안건을 서면으로 회원사들에게 알렸고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난해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을 의결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했다.

아울러, 최경삼 해외협력본부장(전무이사)을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이동하고 신현애 해외협력1부 이사(대우)를 상무이사로 승진, 해외협력본부장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동욱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이사)은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이동욱 경영지원본부장은 한국 원양산업협회에 30여년간 재임하며 원양어업 경영기반 구축과 노사 현안사항 해소 및 국제수산 협력증진을 통해 원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날 협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 승진

해외협력1부 신현애 이사 → 상무이사(해외협력본부장, 기존 해외협력1부장 겸직)

◇ 전보

- 해외협력본부장 최경삼 전무이사 → 경영지원본부장
- 회원지원부 이성재 이사대우 → 기획홍보부 부장(이사대우)
- 기획총무부 강성현 부장대우 → 총무부 부장(직무대리)
-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대우 → 회원지원부 부장(직무대리)
- 기획총무부 공길웅 과장대우 → 기획홍보부(기획담당)
- 홍보·마케팅지원센터 김영수 과장대우 → 기획홍보부(홍보담당)
- 기획총무부 박설진 과장 → 총무부
- 기획총무부 조성환 과장대우 → 총무부
- 기획총무부 조한솔 주임 → 총무부

회원사 주소·연락처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동양수산(주)	부산시 동구 조방로 14	부산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175

3월 7일은 「참치데이」, 영양가득 참치 저렴하게 즐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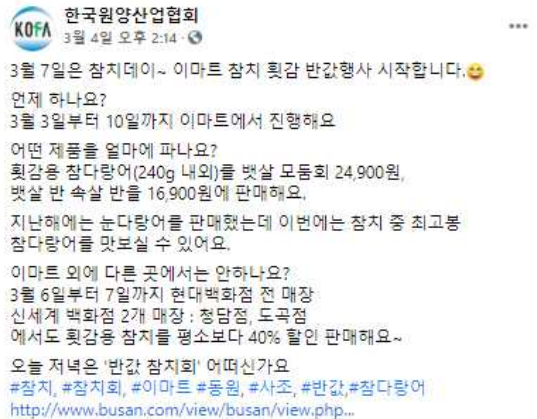
“3월 7일은 참치데이! 영양만점, 참치 핏감 싸게 맞보세요.”

우리 협회는 참치데이인 3월 7일을 맞아 동원산업(주)와 사조씨푸드(주) 등 원양선사들의 참치 판촉 행사를 언론에 적극 홍보하는 등 참치 소비 촉진에 나섰다. 협회는 우리 회원사들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통해 진행하는 참치 판촉 행사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한편 협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참치데이 행사를 적극 알렸다.

사조씨푸드(주)는 3월 3일부터 10일까지 ‘반값 참치행사’로 이마트 매장(성수점, 용산점, 자양점, 산본점, 성남점 등)과 핏감용 참다랑어(240g 내외) 뱃살 모듬회를 2만 4,900원에, 뱃살 반 속살 반을 1만 6,900원에 판매했다. 동원산업(주)도 동일한 기간 이마트 매장(영등포점, 분당점, 죽전점, 청계천점, 가양점 등)에서 동일한 제품을 판매했다.

아울러 동원산업(주)는 현대백화점 수도권 전매장(더현대 서울, 천호점, 디큐브점 등)에서 3월 6일부터 7일까지(잠정), 사조씨푸드(주)는 신세계 백화점(청담점, 도곡점)에서 3월 5일부터 7일까지 핏감용 참치를 40% 할인 판매했다.

우리 협회 최경삼 경영지원본부장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참치는 DHA, EPA, 오메가3, 황산화 물질인 셀레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식품으로 코로나19 확산 속 참치캔의 미국 등 글로벌 판매가 급증해 주목받고 있고 참치 단백질, 셀레늄 등 참치 성분과 코로나와의 연관성에 대한 각종 연구가 이루어지며 영국 언론 매체(Mail Online)에서 ‘과학자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식품’으로 소개된 바 있다』 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몸에 좋은 신선한 참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우리 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한 온라인 및 지면 보도는 부산일보, 중도일보 등을 비롯해 22건이었다.

협회 2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 제14차 이사회 개최
 - 일자 : '21.2.25 / 서면의결
 - 의결권행사 : 임원 19인 중 19인 의결권 행사
 - 내용 : 보고사항 및 의결안건 심의 등
 - '20 주요업무실적 및 결산보고서, '21 사업계획 및 예산서, 협회 제규정 개정의 건, 협회 회원제명 및 미납회비 제각의 건, 정기총회 부의안건 등 총 6개 의안 원안대로 접수 및 의결
- 2021년 협회 정기총회 개최
 - 일자 : '21.2.25 / 서면의결
 - 의결권행사 : 의결권 보유 회원사 31개사 중 28개사 의결권 행사
 - 내용 : 2021년 정기총회 의결안건 심의 등
 - '20 주요업무실적 및 결산보고서, '21 사업계획 및 예산서, 협회 상근임원 선임에 관한 건 등 총 4개 의안 원안대로 의결
 - * 개최 공문 발송, 관련 자료 작성·우편 발송, 결과 보고 등
- 원양어업경영자금 관련 업무추진
 - 가. '21.2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21.2.19 / 협회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2척 34.7억원 원안의결
 - 나. 원양어업경영자금 시행지침 및 세부시행계획, 운영위원회 운용세칙 해양수산부 협의, 승인에 따른 통보(업계 및 수협)
 - 2021년도 무역협회 정기총회 참석
 - 일시/장소 : '21.2.24, 10:00 / 코엑스 컨퍼런스룸(401호~403호)
 - 참석자 : 기획총무부 과장
 - 주요내용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
 - 협회 특별회원 가입승인('21.2.8)
 - 회사명 : 참손푸드(주)
 - 대표자 : 윤재현
 - 업종 : 원양트롤어업 1척
 - * 총회원사 : 47개사(특별회원사 15개사)
 - 2020년도 결산보고서 감사수감 추진
 - 일자/장소 : '21.2.19 / 부산
 - 감사 : 승진수산(운동호 사장), 경태(최홍래 사장)
 - 원양어업경영자금 관련 업무추진
 - 동 자금 시행지침 통보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및 운영위원회 운용세칙 보고 및 승인요청(해수부)
 - '21년도 협회비 부과추진
 - 1/4분기 월회비, 1차분 기본운영회비
 - 회원사 변경사항 안내(전 회원사)
 - 동양수산 주소 변경
 - 부산시 동구 조방로 14 ⇒ 해운대구 선수촌로 175
 - '20.귀속 임직원 연말정산 소득세 신고 (서초세무서)

○ '21년 1월분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분	생산량(M/T)	전년비(%)
합계	47,757	178
- 참치	29,576	122
· 핏감용	2,962	82
· 통조림용	26,614	128
- 명태	-	-
- 오징어	16,772	1,832
- 풍치	-	-
- 기타	1,410	88

회원지원부

○ 21년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관련 업무추진

가. 영상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1.2.2,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부산대학병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관련 유관단체, 상선 및 원양선사 /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21년 사업 사업계획 등 설명회

나. 2021년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희망선박 신청서 작성 제출요청(회원사/2.4)

다. 2021년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희망선박 신청서제출(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2.18)

- 동원산업, 정일산업, 씨맥스피셔리 각 1척 신청

라. 2021년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신규 대상선박 선정결과 알립(3.2)

- 씨맥스피셔리(씨맥스101호) 신규선정 / 現 8개사 15척 참여(신규포함)

○ IMO 제8차 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 제2차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2.3,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담당 주무관, 한국선급,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운협회, 해양경찰,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해양수산개발원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회의 대응방안 논의 등

○ IMO HTW7차 회의 대응관련 업무추진

- 제7차 HTW 회의 개최 : '21.2.15~19 / 영상회의
- 주요안건 : STCW-F 협약 전면검토
- ※ 동 회의관련 회의경과사항 공유와 대응논리 영상 협의(2.16/17/18)(정부/학계/협회)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개선 이행 관련 업무추진

- 가. 노사정 합동점검 실시
- 일시/장소 : '21.2.22, 14:00-17:30 / 협회
- 참석자 : 해수부 선원정책과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선원노련, 원양노조 / 회원지원부 부장
- 내용 : 근로조건 이행여부 합동점검 실시
- 나. 제1차 노사정 합동점검 결과 안내(회원사/2.24)
- 다. 업종별 비상생수 비축기준(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3.2)

라. 외국인선원 하선 설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제출요청(3.2)

○ IMO 제8차 오염방지대응 위원회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3.3, 14:00-16: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담당 사무관 외,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제8차 전문위원회 의제 협의

○ 오징어채낚기 어로계약서 변경 건 업무협의회 참석

- 일시/장소 : '21.3.4, 14:00/ 원양노조
- 참석자 : 원양노조 박진동 위원장 외 / 정일산업 전선중 상무, 회원지원부 이사

- 내용 : 채낚기 업종 어로계약서(상여금)변경 건 협의

○ 편승입국선원의 PCR음성확인서 제출관련 업무추진

- 가. 선원환자 편승선 입항허용 요청 (해수부/2.23)

홍보·마케팅지원센터

- 나. 원양어업 편승선원 PCR음성확인서 제출대상
예외적용 등 건의(질병청/2.25)
- 다. 맹성규 의원실, 상기 현안에 대해 협회 건의공문
전달 (2.25)
- 원양선직무교육 추가개설 교육일정 알림
(회원사/2.26)
 - 원양선 직무교육 어업, 기관어선 추가개설일
· 3.8~10
-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1차 운영위원회
서면서 송부(선원복지고용센터/2.1)
 - 2021년 사업 추진 방향 및 항공권 공급 여행사
선정 등
- 2021년도 원양노조 정기 대의원대회
 - 일시/장소 : '21.2.19, 10:30 / 원양노조 회의실
 - 내용 : 박진동 위원장 선출
 - ※ 모범조합원(3명)에 대한 협회장 표창 협조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개선 이행점검 관련 업무추진
 - 원양선사의 이행점검 관련 자료 취합·정리
- 케이프타운협약 이행지침서 초안 의견조회
(전화원사/2.18)
 - 협약 세부 기술적인 사항 등
- 2021년 해사안전시행계획 알림(전화원사/2.15)
 - 해사안전 전략,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 시행
계획
- 한국해양수산물연수원 2021년도 제1차 서면이사회
서면의결서 제출
 - 2020년도 사업 및 예산결산(안), 정관개정(안),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 수산물가공업 미신고사 제출 촉구(2.25)
 -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5개사에 신고(수산물
품질관리원) 촉구

- 2월호(제1130호) 제작
 - 협회소식 3건(정기총회, 제9차 SPRFMO 연례
회의, 2021년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 국내소식 9건, 해외수산정보 48건
 - 명예해양수산물 보고사항,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313권)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91호 2.3, 92호 2.10,
93호 2.17, 94호 2.24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91호 정보 13건(NGO, PNA의 FAD MSC 인증
확보 시도에 이의 제기/ 러시아 RFC, 디지털선
박운영센터 개설/ 포클랜드 선사, 신조선 인수)
 - 제92호 정보 12건(참치 오메가3, 청소년기 천식
감소에 도움 될 수 있어/ 명태어업자협회 및 회원사,
경쟁 위반 혐의/ 일본 수산물 재고 통계)
 - 제93호 정보 9건(인신매매 관련, 미국 참치 어선
리포트 발표/ 러시아, 명태 공급과잉 대처, 과감한
조치 고려/ 일본 살오징어 사상 두 번째 흉어)
 - 제94호 정보 8건(중국, 에콰도르 EU 로인 시장
공급 확대/ 러시아 정부, 어업 분야 국가 통제
강화 추진/ 아이슬란드 대구 가격 급락)
 -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 보도자료 작성, 홍보
 - 가. 협회, 2021년도 정기총회 서면 결의로 대체
(2.25, 수산전문지)
 - 어민신문(3.8) 5면, 현대해양(온라인)
 - 나. 협회 인사(2.26, 일간지 및 수산전문지)
 - 수산인신문 2면, 어민신문(3.8) 11면
 - 다. 3월 7일은 「참치데이」, 영양가득 참치 저렴하
게 즐겨요(3.3, 일간지 및 수산전문지)

- (온라인) 부산일보(3.3), 중도일보(3.3), 헤럴드경제(3.7), 시사1(3.3), 이데일리(3.6), 환경데일리(3.3), 식품의약신문(3.3), 현대해양(3.3), 비즈니스코리아(3.3), 내외일보(3.3), 싱글&싱글라이프(3.3), 밥상머리뉴스(3.3), 핀포인트 뉴스(3.3), 급식뉴스(3.4), 농수축산신문(3.4), 한국건강신문(3.5), 머니S(3.7)
- (지면) 한국수산경제 2면, 수산신문 3면, 어민신문 7면, 수산인신문 8면, 한국수산신문 12면
- 원양산업지 광고 계약 연장 신청 안내 (동원산업, 사조대림, 정일산업)
 - 광고 계약기간 3월에 만료, 계약 갱신 의사 조회
- 홈페이지 내용 업데이트
 - 원양산업 현황(영문), 회원사 소개(한글, 영문), 조직도
- 기타 자료제공
 - 외부 업체(로켓컴퍼니)에서 동사 제작 황태스낵 홍보를 위해 명태 단백질 관련자료 요청, 관련 자료 및 최근 기사 송부

해외협력분부

해외협력 1부

- 내용 : 선망 월간 정보지 관련 업계 의견 수렴, 향후 계획 안내
- NESI - KOFA 참치연승 부수어획 논의
 - 기간/장소 : '21.2.8, 17:00 / 화상회의
 - 참석자 : NESI 지속가능성 관리자 / 협력1부 대리 외 1명
 - 내용 : 우리나라 참치연승 부수어획 저감 조치 설명 및 질의응답
- 조업감시센터와 전채 업무협의회 참석
 - 기간/장소 : '21.2.17,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조업감시센터 / 협력1부 대리 외 1명
 - 내용 : 지역수산관리기구 전채보고 방법 설명 및 질의응답
- 제2차 참치연승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방식 : '21.2.18, 15:00 / 화상회의
 - 참석자 : 참치연승출어선사 / 협력1부
 - 내용 :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조치 낚시수 및 바지수 추후 검토, WCPFC 상어 보존관리조치 옵션1, 2 선택
- IOTC 황다랑어 특별회의의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방식 : '21.2.24, 15: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 협력1부 대리 외 1명
 - 결과 : 황다랑어 어획한도 추가 감축 불가, 보존 조치 적용 국가 확대 지지 등 회의 대응 방향 논의
-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2021년 WCPFC 공해 FAD 금어기(11-12월) 통보(해수부)
 - 2021년 ICCAT 해상전채 허용 운반선 목록 제출(해수부)
 - 태평양 수역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어획량 조사
- 태평양 원양선망 월간 정보지 제공을 위한 간담회 참석
 - 기간/장소 : '21.2.4,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연근해자원과, 선망업계 / 협력1부 대리 외 1명

해외협력 2부

- 제30차 한-러어업위원회 사전 대책회의(2차) 개최
 - 일시/장소 : '21.2.23, 14:0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주재), 수협 중앙회, 오징어채낚기연합회, 업종별 위원장 / 해외 협력본부장의 3명
 - 회의내용
 - 베링해 조업선단의 육상통역관 운영 지속
 - 북양트롤선의 통신문제 '21년도 재발생시 변경
 - 해상용전자저울 선박별 2개씩 보유중임 알람
 - 어획물 작업·냉동 공간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선원인권침해 문제로 어려움
 - 오징어 선도선박의 냉동운반선 교체는 경비 과다 발생 알람
- 오징어어업 업무추진
 - 가. 포클랜드 수역 채낚기어선 27척 및 트롤선 1척 허가장 취득 완료(2.16)
 - 나. 항만국통제메뉴얼 권고사항 통지 입수 및 번역 추진(2.16 / 포클랜드 EXCO)
 - 다. '코로나19' 진술서 서한 주의내용 알람 (2.18 / 채낚기위원장)
 - 라. 조업선 안전 규정 준수 철저 당부(2.25 / 오징어채낚기출어사, 오징어트롤출어사)
 - 대만선원 추락 및 실종 사고 발생에 따라 선장, 선박 안전관리책임자, 선내안전관리자에게 선내 갑판 작업시 개인 안전장비 의무 착용 및 응급 및 선원 구조시 구조대원 위험 노출 방지, 신속한 조치 및 사고보고 등 안전 조업 준수 당부
-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업무추진
 - 가. NPFC 제5차 이행위 및 제6차 연례회의 검토의견 제출(2.16 / 해수부)

- 나. 제6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위원회 참석
 - 기간/장소 : '21.2.18~2.2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과원, 수품원, 관련업계 / 해외협력2부
 - 회의내용
 - 2021년 어기 품치 어획할당량 논의
 - 저층어업 VME 설정 논의
- 미 해양포유류보호법 대응 관련 한-미 협의회 참석
 - 기간/방식 : '21.2.9, 08: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과원, 주한미국대사관 / 해외협력1·2부
 - 회의내용 : 동등성 평가 시스템 관련 한국측 41 해구 저연승 업종 및 참치연승 현황 설명 및 질의
 - <저연승>
 - 옵서버 커버리지 100% 상향 예정
 - 자체적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조치 개설 예정
 - 혼획 저감 장치 선정 협의회 개설
 - <연승>
 - 타 국제수산기구에서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조치가 없더라도 한국 자체 혼획 저감조치 설정시 면제 어업으로 분류가능 여부 문의
 - 국제수산기구에서 제안서 제출 경과 설명
 - * 실무자 부재로 한국측 질의사항 서면 정리 후 이메일로 송부 예정(2월 17일자 완료)
- 남태평양지역수산기구(SPRFMO) 신규 선박 등록 완료(2.19 / SPRFMO사무국)
 - '승진801호' 및 '아그네스110호' 선박사진 제공 및 사무국 등록 완료
 - * '승진801호' 선박등록 사진이 모범사례로 SPRFMO 웹사이트에 게시 예정

- SPRFMO선박등록 및 선박정보 변경(2.5 / 해수부)
 - 등록 선박 2척, 정보 변경 선박 9척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업무추진
 - 가. 제6차 NPFC(북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 참석
 - 기간/방식 : '21.2.22~2.25, 09: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수과원, 수품원, FMC, 관련 업계 / 해외협력2부장 외 2명
 - 회의내용
 - '21년도 콩치 어획할당량 논의
 - 저층어업 VME 설정 논의
 - 나. NPFC 콩치 TAC 논의 결과 알림 (2.26 / 콩치위원장)
 - 과학위에서 권고한 TAC 70% 감축에 대해 40% 감축 합의
 - 한국은 '21~'22년간 12,455톤의 TAC 확보
 - 어획제한량 70%, 100% 도달시 사무국 보고
 - 다. '20년도 NPFC 전채 실적 및 허가선박 자료 제출 (2.26 / 해수부)
- '21년도 원양어선 안전 관리펀드 사업 협의
 - 일시/장소 : '21.2.23, 16:0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주재), 세계로선박금융 / 해외협력본부장 외 3명
 - 회의내용
 - 원양어선 안전관리펀드 사업 추진 현황 설명
 - '21년도 원양어선 안전관리펀드 운영 계획 협의
- 조업선 표지 설치기준 등 지역수산기구 보존조치 및 연안국 규정 준수 당부(2.26 / 전회원사)
 - 뉴질랜드 당국에서 CCAMLR 수역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선박호출부호가 어구에 가려져있음'에 따라 이를 이행위원회에 보고예정임에 따라 조업선사의 조업선 표지 설치 기준 등 지역수산기구 보존조치 및 연안국 규정 준수 당부

- * (선박명/호출부호) 어구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됨, 선박 측면 또는 상부구조물, 좌/우현 표기, 글자 높이 1m 수준
- * 호출부호 : 조타실 상부 갑판에도 표기
- * 선박이 소지한 보트 등에도 동일 표식 표기
- '21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수요조사 결과 제출 (2.26 / 해수부)
 - '21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수요조사 결과 제출

회사명	선박명	대상수역	대상어종	조사시기
아그네스수산	아그네스110	FAO 87	홍볼트오징어	10.1~12.31
승진수산	801승진	"	"	9.10~11.9
원양물산	동해101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6.1~8.5

- 콩치붕수망 조업선 러수역 모니터링 이용료 환급 (2.1 / CFMC)
 - 콩치조업선 모니터링 이용관련 추가계약서 제출
 - '20년 환급예상분을 '21년 비용에서 차감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조치 업무추진
 - 공해 저층어업 해양포유류 관련 저연승업계간 혼획저감조치 관련 의견 제출(2.5 / 해수부)
- 원양산업 관련 회의 개최 사업 업무추진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2.1 / 해수부)
 - 보조금 교부결정(2.8 / 해수부)
 - 사업비 납입고지서 발급(2.9 / 해수부)
-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 알림(2.4 / 전회원사)
 - 유통질서 교란과 공급과잉 등의 우려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알림
 - 반납 어업허가장의 조업 수역과 동일 어업의 경우
 - 해외현지법인 합작국 어획할당량 제한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65개사 581건('21.2.1-2.28)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4개사 6척(저연승2, 선망1, 연승3)
 - 출항 : 8개사 9척(저연승1, 선망2, 연승6)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제34차 FAO 수산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21.2.1~5 /영상회의(해수부)
 - 참석자: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 유은원 과장, 김승룡 사무관, 김정례 팀장, 박지혜 주무관, 조안나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세계 수산양식 정책 이슈 및 세계수산대학 설립 논의
- 제6차 NPFC 연례회의 참석
 - 일시/장소: '21.2.18~25 /영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국제기구팀 김정례 팀장, 장민주 주무관, 수과원, FMC, 원협,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주요내용: 풍치 TAC 설정, 저층어업 보존조치 등 논의
- SPRFMO 연례회의 참석
 - 일시/장소: '21.2.1~2.4 16:00/ 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국총과 장민주 주무관, 나일강 전문관, 수과원 최석관 연구관, 김은정

- 연구사, 수품원 박민재 주무관, FMC 김수연 전문관, 원협 최동환 주임, 정일산업 박강희 부장, 센터 양재걸 전문관
- 주요내용: 전갱이, 오징어, 저층어업, 읍서버, 항구검색, VMS, 시험어업 등 보존관리조치 제안서 논의, IUU 선박목록, 신임 사무국장 및 의장단 선임, 21-22년 예산안 논의 등
- 일본 동향 모니터링, 자료 조사
 - 가. 방사능 처리수 정부/언론 동향 모니터링 (해양환경정책과)
 - 도쿄전력 처리수 탱크 증설 검토 가능성, 정부 결정 지연
 - 총리, 경산성 대신 발언 변화 정리
 - 후쿠시마 지진 이후 원전 현황 업데이트
 - 도쿄전력 발표자료 (2/14 최종 점검 현황)
 - 누수, 원전 처리수/오염수 탱크 위치 경미한 변화 관련 보도
 - 원전 격납기 수위 저하, 주수량 추가 가능성 검토
 - 후쿠시마 지진 영향, 처리수 정화 설비 운전 일시 정지
 - 나. 일본 해양영토 관련 동향 모니터링(해양영토과)
 - 일본정부 독도 연구해설 전문자료 웹사이트 공개 (내용 요약)
 -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독도 일본령 표기 항공도 조사 (신규4점)
 - 산케이 신문 특별기고 “독도를 생각하다” 번역/요약
 - 독도 관련 일본 언론 동향 (독도의 날, 한국군 시나리오 대응)
 - 독도의 날 (2.22) 관련 일본 동향
 -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신규 해도 발견 발표, 해설 자료
 - 다. 일본 개정 어업법 번역(지도교섭과), (계속)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가. 원양산업뉴스 42건 업로드

나. OFIS 개선사업 용역

- OFIS 개선사업 용역 착수보고회의 개최('21.2.8)
- OFIS 개선사업 용역 선금 지급('21.2.8.)
- OFIS 디자인 및 구성 회의('21.2.17)

다.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교육 실시('21.2.17)

- 보안교육 대상 사업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 유지보수 용역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 개선 사업
- 주요내용 : 사업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위규 처리기준 안내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 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서 OFIS 게재 지원(11건)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가. '20년 연안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투발루) 지원물품 구매 및 운송 용역 계약기간 연장 (2.1, 느낌기획원)

- 계약기간 : (기존) '20.10.5~'21.2.1, (변경) '20.10.5~'21.4.30

나. '20년 키리바시 어시장 설치 사업 관련 2차 영상 회의 결과 보고(2.1)

- 참석자 : 키리바시 수산부 Mr. Tekanene, 협력 센터 서규혁 행정관
- 주요내용 : 사업 추진일정(안) 공유 및 협의, 발생 가능 문제점 점검 및 해결책 협의

다. '22년 신규 ODA사업 무상원조시행계획서 제출 (2.23, 국제협력총괄과)

라. '20년 연안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투발루), 가나, 세네갈 어시장 사업 추진현황 보고(2.10, 국제협력총괄과)

마. '18, 19, 20년(가나, 세네갈) 연안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정산 및 실적 보고서 제출(2.25, 국제협력총괄과)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가. 2020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 e나라도움 '20년도 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2.4)
- '20년도 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 보고 공문 발송(2.8)

나. 2021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 e나라도움 '21년도 사업계획서 등록
- 1차 교부금 교부신청 공문 발송(2.24)
-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작성 및 시스템 업로드 (2.23)
- 나라통계 시스템 구축 신청자료 작성 및 제출 (2.19., 통계청)
- 통계조사 조사대상 파악
- 실태조사 용역 계약서(안) 및 과업지시서(안) 작성

다. 원양어업 생산동향

- 원양어업 생산동향(21년 12월 기준) 작성 및 OFIS 업로드

○ 해외투자정보조사, 전문교육

- '21년도 해외투자정보조사, 전문교육 업계 수요 조사(2.4)

○ 센터 운영 관련

가. 직원 신규채용 진행 (전문관 1명, 행정관 1명)

나. 직원(전문관) 최종합격자 인사발령 및 연봉계약 (2.22)

다. '2020년도 국제수산협상전문가육성관리사업 정산보고서 제출(2.26, 국총과)





연두부명란젓찌개



❖ 이렇게 준비하세요

- 4인분 / 128Kcal
- 재료 : 연두부 : 2모, 명란젓·무 : 100g씩,
 풋고추 : 2개, 붉은고추 : 1개
 실파 : 1뿌리, 새우젓 : 1큰술,
 다진마늘·참기름 : 1작은술씩,
 물 : 3컵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명란젓·채소 준비하기** : 명란젓은 4cm 길이로 썰고 무는 껍질을 벗겨서 0.5cm 두께로 나박썰기 한다. 풋고추와 붉은고추는 송송 썰어 씨를 털어내고 실파는 다듬어 3cm 길이로 썬다.
- ② **뚝배기에 안치기** : 냄비나 뚝배기에 나박썬 무를 깔고 그 위에 명란젓을 안친 다음 물 3컵을 부어 끓인다.
- ③ **연두부 넣기** : 찌개가 한소끔 끓으면 연두부를 푹푹 떠 넣는다.
- ④ **새우젓으로 간하기** : 새우젓을 잘게 다져서 끓고 있는 찌개에 젓국물만 짜 넣으면서 간을 맞춘다.
- ⑤ **양념하고 참기름 넣기** : 찌개의 간이 맞으면 송송 썬 풋고추·붉은고추와 실파, 다진 마늘을 넣고 조금 더 끓이다가 불에서 내리기 직전에 참기름을 넣어 맛을 낸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2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세네갈 야당 대표 체포 후 시위 격화

- 세네갈에서 지난 주 야당 대표 체포로 촉발된 유혈 시위 이후 문제의 야당 대표가 8일 풀려났으나 소요는 계속되고 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 야당 지도자인 우스마네 손코는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원 심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는 석방 후 지지자들에게 모든 합법적 수단을 다해 마키 살 대통령에 대해 시위를 계속하라고 촉구했다.
- 그는 이날 늦게 올린 트윗에서 다만 강제로 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는 않는다면,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혁명은 이미 2024년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파운드, lbs)	가격 (유로/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796	
	3.4kg 상	1,225	
	1.8kg 상	1,142	
눈다랑어	10kg 상	1,183	
	3.4kg 상	1,183	
	1.8kg 상	1,142	
가다랑어	3.4kg 상	1,183	
	1.8kg 상	1,142	
	1.5kg 상	1,018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세네갈 다카르항 내 공급가	경유 380 유로 / MT	'21.2.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지난 7일 피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000 도즈가 도착하였고 10일부터 난디 국제공항 입출국 일선직원부터 접종을 시작했다.
- 피지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하여 108,000 도즈의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 코로나 감염 동향은 첫 감염 사례가 지난해 3월 19일 보고된 이후 최근 해외 입국 감염자 4명 포함 현재까지 총 66건의 감염 발생, 현재 병원에 7명이 입원중이며 57명 회복, 2명 사망했다.
- 감염사례 66명중 18명은 국내감염으로 지난해 4월 18일 이후 국내감염은 없었으며 나머지 48건은 해외 입국자 감염사례이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 (달러/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1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TOTAL	\$783/ MT	'21.3.9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코로나 관련 동향

- 4월 30일까지 블루코드로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 모든 공공 단체, 사업체, 학교, 대중교통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 까지 영업 제한하며 종교 단체 교회는 시간제한이 없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시에는 벌칙금이 부과된다.(스타키스트 참치공장 24시간 가동 가능)
- 미국령사모아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전면 중단했다.
- 2월 11일부터 30일간 모든 선박들은 대리점을 통하여 항만청 및 보건국에 입항 72시간 전 이메일로 해양보건선언: 황열병,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MMR), 선박세부사항: 승무원 목록및 승선날짜 입항도착 최소 72시간 또는 마지막 기항지에서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만약 마지막 기항지에서 코로나 19 테스트를 받을 수 없으시 선장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승무원이 있으면 14일전 보고해야 한다.(모든 여객선은 입항 중단)
- 자국민을 위해 2차로 189명이 3월 10일 본국 송환 항공편으로 입국하여 호텔에서 14일간 격리 중, 거주자가 아닌 외국 국적자 일지라도 사모아에서 긴급 필수인력이 필요할시 법무부에 신청, 입국 허가가 나오면 송환 항공편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 현재 전 국민 16세 이상 백신 접종비율은 42%이다.

나. 참치가격 동향

회사명	어종	규격(kg)	단가 (\$/MT)	기타
Star-Kist	황다랑어	라운드	1,250	
	눈다랑어	라운드	1,050	
Santa Co	가다랑어	라운드	1,050	

※ 가다랑어의 경우 선망선 가격 별도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1.98(gallon)	'21.3.8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오징어 어항

- 예년 2월 대비 낮은 어획률, 가격 작년 대비 상당폭 하락 (20~30%)
- 외국인 선원 입국 시 격리 비용 대폭 상승, 1인당 \$3,100에서 \$5,520로 올라감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LING	3L	3,050	Sea Jho Co.Ltd
	2L	3,050	
	L	2,550	
	M	2,300	
SQUID	2L	3,550	
	L	3,450	
	M	2,950	
	2M	2,650	
	S	2,450	
HOKI	2L	1,800	
	L	1,750	
	M	1,550	
	S	1,25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763/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1.3.2
	LMFO \$659/MT (Timaru에서 공급 기준)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PCR 검사 가능한 허가를 받은 국제해양병원

- 국제해양병원(IMAH)은 식품의약국(FDA)과 보건시설규제청(HEFRA)으로부터 내부 코로나19 고분자효소 연쇄반응(PCR)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나. 6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nghor 염전 프로젝트

- Ada 서부지역장인 Mr. Adzoteye Lawer Akrofi는 Ada Songhor 염전 프로젝트에 대한 염전 임대차 비준으로 600개가 넘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빈곤을 완화시킬 것으로 믿고 있다.
- 지역장은 언론을 통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빈곤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에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250	
	10kg 하	1,000	
가다랑어	3.4kg 상	1,350	
	1.8kg 상	1,300	
	1.8kg 하	1,250	
	1.5kg 하	1,000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기타
Ghana Oil	\$590/kl MGO	'21.2.28	육상급유
SK B&T	\$560/kl MGO	'21.2.28	양상급유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관상어가 주요 수산물 수출 품목으로 부상

- 관상어 수출액이 2,100만 달러에서 3,300만 달러로 증가했다.
- 수출대상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한국, 호주 등이다.

- 지난 1월 10일 해양수산물부 양식총국장 Slamet Soebjako씨는 “Covid-19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상어 사육에 관심을 가지로 있어, 관상어 양식은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올해 해양수산물부는 150종의 관상어 양식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원 분야는 종자치어 공급, 사료, 양식기구,약품, 전기 및 물 공급시설 등이다.

나. 새우수출 목표달성을 위해 폐양식장의 재생사업 절실

- 정부가 정한 2019~2024년 새우 수출 증가 25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우양식장 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 양식장 재생사업을 위해, 투자유치와 인허가 간소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현재 21개 인허가를 2~3개로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해양수산물부의 수출액 성장 목표는 2019년 17억 달러에서 2024년 42.5억 달러이며,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평균 19.8% 증가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새우포럼회장 Budhi Wibowo씨는 1월 10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2019년 대비 2020년 새우 수출액 증가를 볼때, 앞으로 5년간 새우수출 성장 목표달성은 가능하다.수출액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량은 2019년 207,000톤에서 2024년 405,000톤이 되어야 하며, 매년 평균 14.5%의 증산이 필요하다.
- 현재 양식 새우 생산량이 412,000톤/년 인데, 2024년에는 748,800톤 생산목표로 해야한다.
-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는 폐양식장 재생이 필요하며, 2024년 수출액 목표달성을 위해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새우는 미국에 65%를 수출했으며 그 외 일본, 중국, EU가 주 수출국가이다.

다. 코로나 동향

- 2.2 기준 누적 확진자 수 1,099,687명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 12,477명), 사망 30,581명 (최근 1주간 일평균 사망자 302명), 회복 896,530명, 최다 확진자 주 자카르타 특별주 (276,694명), 최다 사망자 주 동부자바주 (7,919명)
- 백신 접종 총 대상자수 181,554,465명, 1순위 접종대상자 수(의료진) 1,531,072명, 누적 1차 접종자 수 539,532명(1일 접종 57,387명), 누적 2차 접종자 수 34,406명 (1일 접종 14,596명)
- 우선순위에 따라 백신접종 시작, 1순위 의료 인력 (의사, 간호사 등) 약 160만명(2021년 1월~4월), 2순위 공무원, 군인, 경찰, 교통시설 종사자(역, 터미널, 공항, 항구 등) 약 1,740만명, 3순위 60세 이상 노인 약 2,150만명(2021.4월~2022.3월), 4순위 고위험군 국민, 고전염 지역주민 6,390만명, 5순위 그 외 국민 7,710만명

라. 한인 동포 코로나19 현황(2.6 기준)

- 총 확진자 97명, 치료중 4명(자가격리), 회복 88명, 사망 5명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물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페루 멸치(ANCHOVETA) 1차 조업 시즌

- 수역 : 남위 16도선 부터 칠레 국경 수역까지
- 총 허용 어획량 409,000톤
- 조업기간 : 3월 10일 부터 6월 30일까지(6.30 이전에 총 어획량 어획 시 자동 종료)
- 페루 생산부 장관의 결정문 번호 RESOLUCION 00074-2021-PRODUCE
- 조업용 망목 제한 : 13밀리미터 (1/2인치) 이상.
- 페루 생산부에 등록되고 허가를 받은 선박에 한하여 척당 쿼터 배정 예정.

나. 코로나 동향

- 3월 7일 현재 확진자 1,371,176명, 사망자 47,854명, 2월 9일 부터 중국산 백신 시노팜 접종 개시(의료진), 3월 8일 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예정.
- 리마/까야오 지역 방역수칙은 월~토 주간 통행 가능, 21~04시 야간 통행 금지, 일요일은 전면 통행 금지. 마트 시장. 약국. 식당 30% 인원 제한, 미용실 40%. 은행·금융기관 40%. 영화관·체육관 0%.
- 스페인 국적 연승선박 TEMIS PRIMERO 3.4일 입항, 어획물 8컨 하역 및 선용품 1컨 인수 작업 완료. 입국 선원들은 페루 도착 72시간 전 발급된 코로나 검사증 의무 지참. 단, 브라질과 남아공 경유자는 입국불허. 출국 선원은 페루 검역소 지정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출국가능.



다. 페루 대선 및 총선 일정

- 4월 11일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실시된다.
- 현재까지 12명의 대통령 입후보자가 있으나, 모두 20% 미만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4/11 투표에서 과반인 50%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1위와 2위 득표자가 6.6 결선 투표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PETROPERU	\$2.47 / 갤론	'21.3.8

정연국 남아공·모잠비크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연국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남아공 동향

- 일별 코로나19 발생 2,000건 미만으로 12월, 1월 10,000 건 이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되어 봉쇄 단계를 1단계로 낮췄다.

- 레벨1의 주요 변경 사항은 밤 12시~새벽 4시로 통금 시간 단축(기존 밤 11시~새벽 4시), 실내 모임은 최대 100명, 야외 모임은 최대 250명.

나. 모잠비크 동향

- 2월 12일에 또 다른 사이클론(Cyclone Guambe)을 겪었다. 2020년 12월 이후 모잠비크에 상륙한 세 번째 사이클론 이었다.
- 베이라 시장이자 두 번째로 큰 야당 인 MDM의 지도자 Daviz Simango가 2월 22일 남아공에서 사망했다. 그는 2월 13일 코로나19 관련한 문제로 남아프리카에 입국하였으며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다.
- 작년 말 이후, 모잠비크 북부에서는 약 5,000건의 콜레라가 보고되었다.

다. 유류가격 동향

지역	가 격	조사일
Durban	IFO 380 \$422 / MT MGO \$611 / MT VLSFO 0.5% \$522 / MT	'21.2.23
Cape; Town	MGO \$551 / MT	'21.2.23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1월, PNG 수역 참치 풍부 중서부태평양 어획량의 거의 절반 차지

중서부태평양 선망선은 올해 초 PNG 수역에서 제일 많은 조업 노력을 투입하여 이 수역에서 가장 높은 가다랑어 어획량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PNG 항구에서의 운반선 활동이 늘어났다.

PNA 임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체 조업일수가 증가했지만 PNA EEZ와 공해에서의 어획량은 12만 6,588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10% 감소했다.

선장들은 올해 1월의 선박 조업일수가 3,400일 정도에서 3,381일로 약간 감소함에 따라 연안국 EEZ 대신 공해 조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선망선들은 조업 수역을 중서부태평양 서쪽에 있는 PNG EEZ로 이동, 총 조업 노력의 46%를 이 수역에 투입했다.

PNG에서의 1월 선망선 어획량은 2019~2021년 동안 가장 많은 5만 9,496톤을 기록하며 중서부태평양 총 어획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솔로몬, 투발루가 총 어획량의 약 27%를 차지했다.

나우루와 키리바시에서의 어획량은 많지 않았다.

올해 1월 전반적인 일일 어획량은 지난해 12월 약 38톤보다 감소한 34톤을 기록했다. 마살 제도는 올해 1월 일일 어획량 51톤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지만 지난해 마지막 두 달 특히 70톤으로 가장 높았던 11월보다 하락했다. 솔로몬 제도와 파푸아뉴기니는 각각 40톤과 39톤으로 마살 제도의 뒤를 이었다.

PNA 항구에서의 1월 전체 물량은 5만 7,550톤으로 지난해 12월 6만 6,847톤 대비 감소했다.

PNG 수역의 참치 어획 증가로 Rabaul, Madang, Wewak 항구에서 방콕, General Santos로 향하는 원어 운반선 물동량은 3만 1,000톤으로 매우 많았다. 키리바시 항구를 통해 운반된 양은 약 1만 2,000톤이었다. 마살 제도 마주로항에서 활동은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했으며 올해 1월 운반된 양은 약 4,000톤에 불과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3월 5일자

WCPFC, 선원의 더 나은 노동 기준 협의 시작 뉴질랜드,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회기간 협의 시동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회원국들은 참치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한 노동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WCPFC는 3월 1일에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의 회기간 회의 참여인원 조사 문서를 회람했다.

WCPFC 제17차 연례회의에서 이러한 회기간 회의가 합의되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가 회기간 협의를 주도하고 위원회 의장 및 사무국

과의 협의를 통해 의제가 개발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에 중국 참치 연승선에 고용된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주목받은 이후 안전 작업 관행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월에 WCPFC에 선원 노동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3월 2일자



일본 신조 연승선 진수

아이즈참치어업(주) 신조선 제88福久丸호

아이즈참치어업(주)는 일본 수산청 어업 구조개혁 종합대책 사업의 돈되는 어업 창설 지원 사업으로 승인된 '원양 참치연승 어업 프로젝트(사업 시행자, 일본가다랑어·참치어업협동조합)'로 원양 참치연승선 건조를 진행하고 있다. 제88福久丸호(499톤)는 지난 2월 25일 시즈오카시의 (주)미호조선에서 진수되었다.

제88福久丸호는 건조된 후 돈되는 어업, 「자원 관리·노동 환경 개선형 어선(남방참다랑어 어장)」의 실증 사업에 투입된다. 남방참다랑어 조업에 적합한 원양 참치연승 개혁형 어선을 일반 선형 공통 사양으로 4척 도입하여 건조 비용을 약 10% 줄였다.

2022년까지 4척의 원양 참치 어선이 건조될 예정이다. 신조선은 5월말에 완성되어 인수되며 7월 실증 사업 투입이 예상된다. 남방참다랑어 조업 시 자원 관리를 위한 태깅 작업은 선외에서 이루어져 왔

다. 신조선은 초저온 구역(급랭·냉동 창고, 냉동 준비실, 냉동 작업실)의 입구 쪽에 태깅 작업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어류 창고를 설치한다.

아울러 냉동 작업 공간에 작업대를 설치하여 작업성 등을 개선하고 토리라인(바다새 보호줄)을 감는 기계를 설치하여 자동화를 도모한다. 고압력 살수로 조류의 접근을 막는 장치도 도입한다.

또한 기존 선루갑판에 있던 식당을 상갑판에 두고 배의 중심에 가까운 쪽에 배치해 흔들림을 억제했으며 선루갑판의 거주 구역은 전체 선실을 1~2인실로 만들어 개인 공간을 확보했다. 인터넷 환경도 정비하여 업무 및 개인 이용이 확충되었다.

신조선의 명세는 전장 57.43m, 형폭 9m, 수선간장 50.5m, 형심 3.9m, 흘수 3.49m, 정원 26명(업서버 2명 포함)이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3월 2일자

영국 소매 업체, MSC 인증 참치 점유율 크게 줄어

MSC 인증 참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해양관리협의회(MSC)의 영국, 아일랜드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 기간 동안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소비된 참치 중 MSC 로고를 사용한 참치는 10% 미만이다. MSC 인증을 받은 최종 제품의 소비량은 5,662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7/2018 8,173톤에 비해 30% 감소했다.

이러한 참치 어종의 MSC 인증 소비는 연어, 대구, 명태, 해덕대구, 고등어, 냉수성 새우 등 주요 수산물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일뿐만 아니라 주요 자 연산 어류 중 판매 점유율 차원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해덕대구 MSC 로고는 총 소비량에서 76%를 차지해 주요 어종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참치 MSC 소비 수치가 후퇴하는 동안 더 많은 참치 어업이 MSC 인증을 획득하고 있으며 더 많은 MSC 인증 참치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MSC 핸드북에 따르면 전 세계 참치 어획량 중 MSC 인증 비중은 25% 가까이 되고 2019/2020년에 생산된 MSC 인증 참치 총량은 역대 최대인 140만톤에 달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3월 1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상승 가속화

1,400 달러에 거래

방콕 가다랑어 가격이 급등했다. 전 세계적인 연료 비용 증가와 낮은 어획 수준으로 인해 공급업자들은 냉동 가다랑어 원어의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Atuna가 2월 26일 보도한 바와 같이 참치 원어 가격은 상승, 하락의 교차점에 있었다. 당시 방콕 가다랑어 원어(1.8kg 이상)는 대부분 1,250 달러에 거래되었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150 달러 가까이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

방콕의 최신 소식에 따르면 시장 가격은 확실히 상승했다. 대부분의 원어 어가가 톤당 1,400 달러로 지난주에 비해 가격이 12% 정도 상승했다.

소식통은 판매자와 선주가 낮은 가격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이후 시장 가격은 1,200 달러 수준을 돌파했다. 선주들은 2월 이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조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가격에 가다랑어를 팔고자 한다.

가공업자들은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어획부진 정보로 가다랑어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방콕 가공 업체들의 원어 재고 보유 수준은 평균으로 수요는 있으나 강하지는 않다.

지난해 가다랑어 가격은 2월말에 이미 톤당 1,400 달러에 도달했고 몇 주 동안 빠르게 상승해 3월에 톤당 1,550 달러를 기록한 후 한 달 동안 가격을 유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3월 2일자

일본 1월 참치 수입, 지난해 수준

냉동 수입량 감소했지만 수입금액 증가

일본 재무성 세관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참치 수입 실적은 선어(신선, 냉장)가 510톤(전년 동월 대비 1% 증가), 6억 6,000만 엔(2% 증가), 냉동이 1만 3,240톤(11% 감소), 213억 6,500만 엔(2% 증가), 가공품이 3,627톤(1% 증가), 19억 9,700만 엔(4% 감소)이었다. 냉동 눈다랑어 원어 수입은 2,951톤(39% 감소)으로 지난해 1월부터 매월 5,000~6,000톤 대를 기록한데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폭이 큰 대만산은 지난해 12월 1,263톤(48% 감소), 올해 1월 1,509톤(42% 감소) 수입되었다. 중국산도 587톤으로 57% 감소했다. 대만산 수입 평균 가격은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하락했다. 11월에는 kg당 659엔이었으나

12월은 638엔, 올해 1월은 622엔으로 하락하고 있다. 냉동 참치 수입량이 감소했지만 단가가 높은 양식 참다랑어 필렛 수입량이 2,874톤으로 107% 증가함에 따라 수입금액은 증가했다. 몰타산 수입량은 1,004톤으로 지난해 동기와 다르지 않지만 스페인산(934톤)과 모로코산(621톤)의 반입이 앞당겨졌다. 황다랑어 필렛 수입도 24% 증가해 1,064톤을 기록했다. 중국산 수입이 316톤(79% 증가)으로 가장 많았다. 단가는 970 엔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엔 상승했다. 대서양 참다랑어 선어 수입은 비상사태 선언의 영향으로 10톤(88% 감소)에 그쳤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3월 5일자



조업 호전으로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소폭 하락

1,324 달러에 거래, 황다랑어는 2,186 달러 유지

인도양 참치의 1월 양륙 수준은 걱정스러웠다. 2월은 어획 상황이 좋아 세이셸 항구의 냉동 가다랑어 원물 가격이 약간 하락했다. 반면 황다랑어는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가다랑어 원물(1.8kg 이상) 현금거래 가격은 1,090 유로(1,324 달러)로 1월에 비해 5% 하락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월 초에는 1,050 유로(1,276 달러)로 현재보다 좀 더 낮았었다.

이러한 소폭 하락의 주된 이유는 2월에 세이셸 참치 양륙량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인도양 선망선들은 좋은 어획량을 유지하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대서양에서 조업하던 일부 어선들은 조업 상황이 인도양 보다 좋지 않아 인도양으로 재배치되어 조업하고 있으며 어획물을 인도양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EU 어선의 일부는 EU 원산지 참치에 대한 수요가 높은 에콰도르로 어획물을 운송하고 있다.

황다랑어 가격은 2020년 12월 이후 1,800 유로(2,186 달러)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황다랑어 조업 시즌이 이미 종료된 현 시기에 황다랑어 가격은 급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황다랑어 공급이 안정적인데 반해 수요가 약하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세이셸 참치 가공공장은 여전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어 100%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세이셸인의 80~90%가 이미 코로나19 백신 두 번째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공장은 다음 주 중에 100%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2월 23일자

타이 유니온, '25년까지 참치 공급망 투명화' 약속

목표 달성 위해 환경 단체와 협력

타이 유니온은 3월 3일에 거대한 참치 공급망이 2025년까지 완전히 투명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약속은 글로벌 보존 단체인 The Nature Conservancy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타이 유니온의 모든 파트너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을 설치하여 참치 공급망에 대한 100% '해상(on-the-water)' 모니터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타이 유니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구매자 중 하나로 소매 업체의 자사 브랜드(private label) 참치 통조림 제품뿐만 아니라 미국 브랜드인 Chicken of the Sea와 영국의 John West를 포함하는 브랜드 제품군도 생산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3월 3일자



중국, 에콰도르 EU 참치 로인 시장 공급 확대

EU 수입 13% 증가, 중국이 증가 물량의 대부분 차지

참치 자숙 로인에 대한 유럽 캔 가공업체의 수요는 2020년에 급증했다. EU 가공업체들은 자숙 로인을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더 많이 구매했다. 중국은 유럽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해 확대된 수입량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지난해 EU 국가로의 참치 로인 운송은 총 17만 8,080톤으로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 대비 2만톤 증가했다. 반면 수입 평균 가격은 2019년 보다 훨씬 낮았다.

2020년 중국은 EU로 2019년 대비 1만 7,140톤 더 많은 총 4만 5,001톤을 수출했다. EU의 2019년 대비 2020년 총 수입량 증가량은 1만 9,529톤으로 증가량의 대부분을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 수출업체들이 수출한 참치의 평균 CFR 가격은 톤당 3,314 유로로 수출국가 중 가장 낮다. 중국 제품은 관세 24%를 추가 하더라도 다른 원산지 특히, 주요 경쟁자인 에콰도르보다 훨씬 저렴하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모든 참치에 관세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까지 수입 물량 중 3만톤이 자율할당관세 (Autonomous Tariff Quota, ATQ)를 통해 0% 우대 관세를 부여받아 유럽 시장에 들어왔다. 자율할당관세는 2021~2023년에 3만 5천톤으로 상향되었다.

중국은 자율할당관세 시행 후부터 허용 물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다. 자율할당관세가 선착순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수입 물량은 상반기에 거의 모든 물량이 수입된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트럼프가 시행한 추가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거의 상실했다. 중국의 2020년 미국 참치 로인 수출량은 238톤에 불과하다.

에콰도르는 중국의 공격적인 확장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출국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두 국가의 수출량 차이는 1,400톤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20년 4분기에 에콰도르는 1만 728톤(에콰도르 총 수출량의 23%)을 수출한 반면 중국은 3,316톤만 수출해 마지막에 역전되었다. 에콰도르 수출물량의 평균 CFR 가격은 톤당 4,535 유로였다.

에콰도르와 중국은 EU 로인 수입 시장의 51%를 차지했다.

반면, PNG, 필리핀, 과테말라, 베트남의 EU 수출은 감소했다. 스페인은 2019년에 비해 로인 수출량이 17%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이탈리아로부터의 공급은 증가했다. EU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공급된 참치 로인 평균 가격은 톤당 5,995 유로로 가장 높았다. 솔로몬 제도는 톤당 5,862 유로로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는 황다랑어 비율이 높고 가다랑어 채낚기선으로 어획한 MSC 인증 가능 참치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2월 19일자





일본 대형 눈다랑어 시세 700 엔 유지

인도양 대만 一船買(뱃떼기 거래) 황다랑어 눈다랑어 역전

냉동 눈다랑어 시세의 지표가 되는 인도양 대만선 일선매(뱃떼기 거래) 구매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쿄 도요스 시장 도매 관계자에 따르면 대형 눈다랑어(1마리 40kg 이상) 가격은 2월 중순 현재 kg 당 700 엔으로 전월 중순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저렴하다.

1월에 나온 두 번째의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업소용의 수요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반입도 감소했다. 수요 공급이 모두 축소, 균형이 잡혀있다. 이번 달은 상승 국면은 아니지만 내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도매시장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도시 지역에서 긴급 선언이 발령된 후 냉동 눈다랑어의 수요는 업소용을 중심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1월의 도요스 도매시장의 월간 참치 취급량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30~50% 감소했다. 업소용이 중심인 경매장에 진열된 참치 매출이 감소했다.

양관점을 중심으로 한 소매 수요는 견조해 전년 동월의 100% 전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긴급 선언 후 뛰었던 적은 없다고 도매 시장 측은 말했다.

한편, 신형 코로나에 따른 시세 하락에 따라 지난해부터 출어하는 어선은 감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즈오카, 시미즈 등에서의 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1월 반입량은 전년 동월을 약간 밑도는 정도였지만 2~3월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에 일선매 구매 가격을 현재 수준까지 올렸으나 수요가 전혀 따라 붙지 않았다. 적어도 긴급 선언 해제 후까지 시세를 유지할 것』 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반입 감소로 인해 타이트한 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냉동 황다랑어다. 냉동 황다랑어 시세는 인도양 대만선 일선매 가격이 25kg상이 550 엔, 15kg상이 450 엔으로 냉동 눈다랑어 동일 사이즈와 같은 수준의 추세를 계속 보였었지만 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도매시장 측은 『눈다랑어 가격을 황다랑어가 웃도는 것은 과거에도 기억이 없다』 고 말했다.

도매시장 측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냉동 황다랑어 재고 과잉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본래는 눈다랑어를 중심으로 취급했던 간도우(關東) 양관점에서도 판매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나 작년 가을 이후 연승선, 선망선 모두 흥어에 휩쓸려 반입량이 급감했다. 올들어 상황이 나아져 재고가 지난해에 근소해지고 있다.

양관점 입장에서 보면 특별 판매 계획 등도 있어 황다랑어의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눈다랑어로 전환할 수는 없다. 또한 일제히 눈다랑어로 전환했기 때문에 눈다랑어도 오른다. 그걸 보고 당분간 관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도매상들은 설명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2월 19일자

인신매매 관련 테스크 포스, 미국 참치 어선 리포트 발표

비자 개선사항 포함 27가지 권고 사항 담겨

국제 수역에서의 인신매매에 관한 테스크 포스(Task Force on Human Trafficking in Fishing in International Waters)가 지난해 12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다. 테스크 포스는 미국 참치 어선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강제 노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18년에 소집되었다. 이 보고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빈틈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고 미국 시장에 어획물을 반입하거나 반입하지 않는 미국 국적 및 외국인 선박 모두에 미국 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미 연방 당국은 이 보고서에서 참치를 타겟으로 하는 어선을 포함한 미국 어선에서 인신매매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국은 외국인 선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하와이 연승 협회(HLA)는 미국 국적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들의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이미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응답했다.

테스크 포스는 어선에서의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27건을 권고했다. 테스크 포스는 연방 기관이 학대 행위에 연루된(engaged)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능력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것과 같은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기를 원한다.

권고 사항에는 비자 문제가 많이 언급되었다. Atuna는 지난해에 하와이 참치 연승선 승선 외국인 선원의 이동 자유를 제한하는 비자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HLA의 전무이사인 Eric Kingma는 『외국인 선원들은 항구 주변에서 움직이는 것이 허락되지만 해당 구역을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국 정부가 협회의 지원으로 현재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외국 수역에서 운항하는 미국 선박의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동 증명서(labor certificats) 또는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s)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테스크 포스는 기존의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D, H-2A, H-2B)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선사들이 이주 선원을 고용하기 전에 비자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Kingma 전무이사는 HLA가 보고서에서 권고한 사항(테스크 포스 이전 권고사항 포함) 중 많은 부분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HLA가 외국인 선원들을 돕기 위해 취한 조치 중 일부를 언급했다. HLA는 작업장 조건 관련 불만과 계약 관련 이의 제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 강령과 선원 핸드북을 마련했다. 가이드북에는 선원 관련 정부 부서, 의료 전문가와 같이 외국인 선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야의 전화번호도 포함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및 기타 태평양 도서국에서 온 선원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버전도 있어 활용 가능하다.

한편, 과거 2016년 9월에 AP 통신이 미국 연승 어업 이주 선원들의 근무 조건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발표해 해당 문제가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두 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미국 상업용 어선 Sea Queen II의 소유주와 운영자를 고소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가혹한 노동 환경이었다며 점심시간은 30분, 수면 시간은 3시간 30분밖에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유자와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2018년에 합의했으며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2월 9일자



일본 참치 살코기 부족 냉동 눈다랑어 공급 감소

다랑어 살코기 부족 문제는 지난해 여름 무렵부터 대두되었다. 냉동 눈다랑어를 조업하는 대만을 중심으로 한 해외 선박의 일부가 시세 약화로 출어를 미뤄 위기감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어선이 어창을 가득 채우기 전에 조업을 끝내고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일본에 반입된 어획물도 많다. 재무성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냉동 눈다랑어의 수입량은 6만 24톤으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했다.

지난해 10월에 해외선박의 양륙 현장 가격(일선매, 배떼기 거래)이 재검토됨에 따라 조업을 재개한 어선이 많아지는 듯 하지만 조업을 마치고 전채한 어획물이 일본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수입량은 지난해 12월 1,26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고 올해 1월 1,509톤으로 42% 감소해 최근 대폭적인 감소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공급 감소에 소비 증가가 더해졌다. 지난해 냉동 눈다랑어 출고량은 7만 2,546톤으로 2019년 6만 4,531톤, 2018년 6만 3,727톤을 크게 상회했다.

2020년에는 당시까지 풍어였던 황다랑어 등 올림픽 수요를 예상한 재고로 대기선이 생길 정도로 창고가 가득 찼었다. 당시 공급자들은 연초부터 가격이 싸더라도 출고를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었지만 집에 많은 시간 머물게 되면서 오히려 국내 수요가 증가했다.

판매 주체는 양판점이며 지명도와 적당한 가격으로 양식 참다랑어도 증가했지만 가장 잘 팔린 것은 저렴한 가격대의 살코기 참치이다.

해외 어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본 원양 참치 연승선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본래의 조업 시기에 출어하지 못해 풍어 기회를 놓쳐 생산량 감소 등으로 귀향이 늦어지는 등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가격 반등의 영향으로 양판점은 살코기 참치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3월 3일자





오징어 낚시줄 발전, 어업 서포트

플로로카본 소재 ‘시거(브랜드) 낚시줄’ 잘 잡히고 내구성 좋아

오징어 어업의 기록적인 흥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업실적을 늘리는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필사적인 어획개선을 모색하는 가운데 낚시와 조상기를 연결하는 줄을 쿠레하합섬의 ‘시거 강건 오징어’ 제품으로 전환하는 어선이 증가하고 있다.

시거 브랜드 낚시줄은 수중에서 보기 어려운 지표가 되는 굴절률이 1.2로 나일론(1.8)에 비해 물(1.3)에 가깝다. 원료로 사용되는 플로로카본의 특징으로 시인성(식별이 쉬운 정도)이 낮아 수중에 줄이 녹은 듯하다. 오징어의 눈에는 속임낚시만이 유효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용자는 잘 낚인다고 칭찬한다.

수산연구 교육기구 개발조사센터가 2019년에 실시한 LED 선상 집어등 조업 실증사업에서는 우현과 좌현에서 플로로카본계와 나일론을 구분하여 사

용한 비교실험도 실시했다. 실험 결과 주야 조업 모두 플로로카본 줄을 사용한 현측의 어획 마리수가 많았다고 보고되었다.

시거는 내마모성에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 오징어 채낚기 어업은 낚시와 함께 걷어 올리기 때문에 줄이 손상되기 쉽다. 플로로카본 낚시줄은 나일론 낚시줄에 비해 손상이 되더라도 특성 상 다소의 흠집에도 잘 끊어지지 않아 오징어를 보다 많이 잡으면서 낚시줄의 교환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줄 절단으로 발생하는 추의 손실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플로로카본 낚시줄은 물 흡수성이 거의 제로이며 자외선에 의한 열화도 억제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2월 24일자

일본 신선 오징어 저인망 TAC 소진으로 반감

이시카와 정치망은 풍어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선동 오징어의 전국 주요 항만 하역은 올해 전년 대비 반감하고 있다. 1월은 전년 동월 대비 49% 감소한 419톤, 2월 1~10일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한 59톤이다. 산리쿠의 저인망이 총 허용어획량(TAC)을 소진해 조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지, 주요 항구로 집계되지 않는 이시카와현의 정치망에서 어획이 늘어나 향후에 기대가 된다 고 이 센터 측은 밝혔다.

최근 자원과 어획량이 격감하고 있던 살오징어는 2020년 어기(2020년 4월~2021년 3월) 전반에 산리쿠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이와테현 미야코 등으로 저인망 조업 상황이 향상되었다. TAC

소진이 이뤄져 어획량 제한이 본격화, 1월 시노마키가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한 42톤, 미야코에서 99% 감소한 2톤이었다. 대신 1월에 어획의 중심은 채낚기 위주인 야마가타현 사카타(85톤)와 나가사키현 마쓰우라(54톤)이었다. 어체가 성숙하는 어기 중반이기도 하고, 1마리 200~250g으로 대형 사이즈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태풍이 많아 전국적으로 어획량은 주춤했다고 센터 측은 말했다. 대조적으로 신장된 것은 이시카와현의 정치망으로 1월은 전년의 2배인 약 200톤, 2월 상순은 어획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어체 사이즈는 125~250g이다.

* 기사 출처: 일본 수산경제신문 2020년 2월 15일자



일본 살오징어 사상 두 번째로 흥어

2020년 13% 증가한 3만 7,000톤, 수요 감소로 단가 10% 다운

JP全漁連은 2월 9일에 2020년 일본 오징어 어획 상황을 발표했다.

살오징어는 선어, 냉동 합해서 3만 7,085톤으로 전년보다 13% 상회했다.

전어련에 따르면 1984년 통계 이후로는 전년(2019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적은 수치이다. 평균 단가는 오징어 수요 감소와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영향으로 12% 하락한 kg당 595 엔으로 하락했다.

선어 수량은 8% 증가한 3만 1,509톤이었다.

홋카이도가 47% 감소한 5,687톤으로 저조했던 반면 산리쿠지구는 29% 증가, 호쿠리쿠에서 어획이 늘어난 혼슈 동해지구는 56% 증가해 전체로는 전년을 상회했다.

냉동은 48% 증가한 5,567톤이었다.

홋카이도 하코다테, 산리쿠 하치노헤, 혼슈 동해지구 이시카와, 야마카타 모두 전년을 상회한 어획을 보였다.

동해 어장에서의 중형 오징어채낚기 어선 어획이 시기에 맞춰 이뤄진데다 11월에 산리쿠 수역에서 어장이 형성된 점 등으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다만 사상 최저였던 2019년을 상회한다고는 하지만 2018년(1만 3,270톤)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낮은 수준에서 약간의 회복을 보였을 뿐이다.

생산자들 사이에서 2020년 어획은 아직 어선이 채산성을 맞출 수준이 아니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평균 단가는 선어가 13% 하락한 565 엔, 냉동이 13% 하락한 759 엔으로 모두 약세였다.

홋카이도 가공업자는 최근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오징어 수요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에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으로 다른 수산 상품 가격도 하락한 것과 업소용 수요 감소가 발생한 것도 오징어 시세 하락을 야기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국내 살오징어 어획은 10년 전인 2011년에는 20만톤 이상(신선, 냉동 합계) 규모였었지만 2015년경부터 감소 경향이 심해져 2017년에는 사상 최저인 5만 4,000톤으로 하락했다. 2018년, 2019년도 연속으로 사상 최저 기록을 갱신했다.

2020년은 2013년 이후 7년만에 전년을 상회하긴 했었지만 여전히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공업자는 『전년 보다 10% 증가하는 정도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한 원료 확보가 여전히 어려워 다른 어종으로 눈을 돌리는 등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상황의 심각함을 전했다.

※ 기사 출처: 일본 수산경제신문 2020년 2월 12일자





오징어 관리에 국제 대화를 미국 단체, 중국 IUU 남획 분석

IT 거인 구글의 협력하에 IUU 어업 근절을 목표로 미국의 민간 비영리 단체(NPO) 글로벌 피싱 워드(GFW)의 제이윤·박 수석 데이터 연구원은 2월 9일 온라인 강연회에서 중국 어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IUU 어업으로 오징어가 남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획을 막기 위해 日·中 등의 국가 간 대화·관리 체제의 확립을 희망했다.

박 연구원은 인공위성에서 배 광학 이미지·집어등 이미지 레이더 등의 정보와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 정보를 합쳐 불법 어선의 움직임을 찾아내는 연구를 소개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중국 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불법 어획하고 있으며, 2017~2018년 동 어획량은 16만톤으로 동 기간의 한국과 일본의 총 어획량에 필적하는 것 등이 이미 추정된 바 있다. 오징어 자원의 남획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국 선단은 중국 당국의 관할 밖에서 조업하는 무등록·무기국·무허가 선박의 가능성이 높고, GFW 측에서도 중국 정부로부터 이 어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미나토신문은 『이 어획은 중국에 즉시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중국 당국이 진지하게 대책을 생각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박 연구원은 『환경 변화도 있지만 남획이 일어나고 있으며 거의 멸종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다. 오징어를 좋아하는 일본이나 한국, 중국에게 나쁜 것이다. 지역 간 협력으로 제대로 대화하고 지속가능성을 갖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요망 사항』 이라고 답했다.

일본 수산 연구·교육 기구 등에 따르면 일본 근해의 살오징어 개체군 2개의 총 자원량은 2014년에 253만톤이었지만, 최근에는 100만톤 미만으로 추정된다. 2019년 일본의 오징어 어획량은 3만 3,000톤으로 현행 통계 사상 최저였다.

이 강연회는 수산 정책 등의 컨설턴트를 하는 2개 기업(시푸드 레거시, GR Japan)과 4개 단체(세계 자연보호기금<WWF>, 재팬, 더네이처 컨서번시, 세일러즈 포저시 일본지국, EDF 재팬) 등이 마련했다.

※ 기사 출처: 일본 수산경제신문 2020년 2월 11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알래스카 생산 문제로 명태 가격 상승 명란, 필렛 생산량, 지난해 대비 크게 감소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는 높은 수요와 생산 지연 덕분에 A시즌에 기록적인 가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UniSea, Trident Seafoods, Nichiro 소유 Alyeska Seafoods의 가공공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1월부터 2월까지 중단되었다.

몇몇 알래스카 명태 소식통에 따르면 공급은 결국 평년 생산량을 따라잡을 것이지만 시장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한다. 알래스카 가공공장에 원어를 공급하는 명태 트롤선사의 한 임원은 제품 생산 지연이 올해 명태 가격을 예상가보다 더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가시제거 필렛(PBO) 가격은 톤당 3,500~3,600 달러 정도로 예상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3,800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 27일까지 연육 생산은 2019년 동기보다 33%, 껍질과 지방층 제거 필렛(deep-skinned fillet)은 18%, 가시제거 필렛(PBO)은 57% 정도 감소했다. 명란 생산량도 감소 추세이다. 올해 2월까지 생산량은 7,487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51% 감소했다.

알래스카 주요 가공공장 3곳에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가공을 중단하면서 고부가가치 명란 가공이 방해 받았다. 일반적으로 명란은 A시즌이 시작되는 1월에 발견된다.

명태 트롤선사의 임원은 최근 명란 확보를 더 지연시키는 심각한 기상 문제가 있다고 알려졌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3월 8일자

지난해 미국, 알래스카 명태 소비 감소 자국 모든 생산 제품에 대한 소비는 높아져

2020년 한 해 동안 냉동 알래스카 명태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 명태 소비는 감소했다. 미국 소비자의 명태 소비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수입 감소와 국내 어획량 감소이다.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들은 B시즌에 명태 TAC 중 6만 5,000톤을 소진하지 못했다.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명태 소비량은 0.873 파운드로 2019년 0.983 파운드 대비 11% 감소했지만 2018년 0.717 파운드 보다는 높았다.

2020년 미국 국내 어업 어획물로 가공된 주요 명태 가공품은 2019년 대비 감소했다. 2019년 대비 연육 생산량 약 11% 감소, 껍질과 지방층 제거 필렛(deep-skinned fillet) 13.5% 감소, 가시제거 필렛(pinbone-out fillet)은 23% 감소했다.

하지만, GAPP에 따르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미국 국내 모든 형태의 명태 필렛 소비량에서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필렛의 소비량이 61%를 차지해 2019년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3월 1일자



러시아 정부, 어업 분야 국가 통제 강화 추진 가공공장 신설 속도, 외국인 보유 지분 제한 강화

러시아 연방 당국은 어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다.

2020년 12월에 서명된 칙령(degree)에서 Mikhail Mishustin 총리는 외국에서 건조된 모든 트롤선이 러시아에 세관 신고(customs declaration)를 하도록 명령했다. 언론매체인 FishNews는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어획 쿼터를 잃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고는 2022년 1월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힘 있는 업계 이해 관계자들이 정부의 결정에 항의했다. 전국 러시아 수산회사 협회는 세관 신고 기한을 적어도 2023년까지 연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 러시아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수하여 소유하고 운영하는 트롤선 중 미신고 선박은 총 70척이다. 해당 기업들은 해외 항구에서 어획물을 하역하고 선원을 교대하고 있다. 업체들은 세관 신고로 인해 선박 당 평균 4,000만 루블 이상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더 많은 국내 어류 가공을 추진하고 있다. Yuri Trutnev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가공공장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어업 쿼터를 아낌없이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14개소의 가공공장이 건설 계획 단계에 있으며 더 많은 신규 투자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Trutnev 부총리는 지난 2월에 극동 지역을 방문했을 때 『프로젝트 평가 일정을 줄이고 토지를 할당하며 유익한 제도를 구축할 것이다. 가공공장이

반년 이내, 늦어도 2년 이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단 시간에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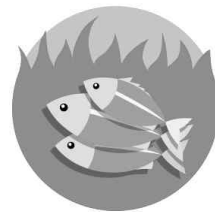
러시아 당국은 또한 수산업 부문의 국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러시아 수산청은 연방 반독점 규제기관(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러시아 기업의 외국인 소유를 최대 25%로 줄이는 계획을 제안했다고 알렸다. 현재 외국인은 러시아 기업의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소유 지분 건은 3월에 러시아 하원(State Duma)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러시아 어업회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Norebo사에 따르면 새로운 법안은 러시아 기업이 운반선 및 기지를 포함한 외국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Norebo사의 Sergey Sennikov 부사장은 러시아 언론매체인 Kommersant에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선박 부족 및 선박 운송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The Barents Observer,
2021년 2월 17일자





러시아, 명태 공급과잉 대처 위한 과감한 조치 고려 러시아 가공 확대, 수출 시장 개척, 정부 매입 확대 등

러시아는 코로나19 검역 조치로 중국의 주요 항구인 칭다오와 다롄항에서 러시아 선박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막혔다.

러시아 연방 수산청 부국장 Pyotr Savchuk는 『중국은 잘해야 2월 하반기에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이다』 고 말했다.

올해 2월 1일까지 러시아 극동 수역 총 어업 생산량은 28만 9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명태는 17만 8,520톤, 대구는 1만 7,260톤, 청어는 6만 1,680톤이다. 러시아 연방 수산청에 따르면, 러시아 수산 회사들은 1월에 명태와 청어를 중국으로 15만톤 가량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수출이 불가능해져 동 물량이 그대로 러시아에 머물러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냉동 저장 시설의 저장 능력이 한계에 가까워져 간다는 것이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냉동 시설 저장 능력은 육상 기반 시설 7만톤, 냉동선 저장 5만 5천톤으로 2월 중순까지 최대한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 명태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Dobroflot사 Alexander Efremov 대표는 Kommersant 언론사에 명태 도매가격이 위기 전 kg당 100루블(1.31 달러)에서 72루블(0.95 달러)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매 부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현재 명태 시즌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른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의 대통령 특사인 Yuri Trutnev는 수산청을 포함한 정부 기관에 더 많은 러시아 명태가 고부가가치 가공품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계획의 설계를 요청했다. 그는 보도 자료에서 『미래에 우리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원물 수출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 가공품을 생산해야만 한다』 고 밝혔다.

러시아 언론사인 Fishnews 보도자료에 따르면, Pyotr Savchuk 수산청 부국장이 정부가 러시아 중부 지역에 어류 가공공장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고 한다.

그는 『가공을 위해 극동 항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어획물을 운송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수산 업체들이 게 업체들과 같이 중국을 벗어나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러시아 게 어업자들은 중국에 수출이 막힌 이후 빠르게 한국으로 수출선을 이동한 바 있다. 2020년 말 명태어업자협회(PCA)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미비아 또한 수출 유망국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러시아 수산청은 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 학교, 군대를 포함한 공공 부문에서의 명태 제품 수요를 촉진하는 생선 개입(fish interventions) 이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러시아 업계 전문가들이 이 새로운 계획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수산청이 입법안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채택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한편, 새로운 조치를 기다릴 수 없었던 많은 러시아 명태 어업자들은 아프리카 국가 공급을 목적으로 어선을 청어 어업으로 돌리고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2월 8일자, SeafoodSource, 2021년 2월 16일자



‘21~‘22년 북태평양 콩치 TAC 40% 감소 NPFC 연례회의 결과

북태평양어업위원회(NPFC)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연례회의를 개최해 2021~22년 북태평양 수역의 연간 콩치 TAC(총허용어획량)를 현재 55만 6,250에서 40% 삭감해 33만 3,750톤(공해 33만톤 → 19만 8,000톤, 일본 러시아 EEZ 22만 6,250톤 → 13만 5,750톤)으로 결정했다.

이번 TAC 결정은 일본이 공해 어장 TAC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지만 어획 점유율 1위인 대만과 중국에서 삭감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33만 3,750톤으로 결정되었다. 공해 TAC는 향후 과학적인 자원 평가를 실시한 후 22년까지 재검토될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공해 TAC는 2018년 어획량 43만 톤보다 적지만 2019년 어획량 19만톤보다 많아 실질적으로 어획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불투명하다. 일본 수산청은 『콩치는 자원량의 변동이 큰(환경 요인 등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어종으로 ‘22년까지 자원량이 회복되면 의미있는 조치가

다』 라고 하면서도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더 확실한 관리조치를 만들고 싶다』며 공해에서의 어획량 삭감과 이에 따른 국가별 TAC 하향 배분이 향후 목표라고 말했다.

동 회의에서 EU의 NPFC 가입도 승인되었다. EU는 부어류 트롤어업 등을 희망하는 것 같다. 하지만 EU의 어업조건은 다른 NPFC 회원국의 합의가 없으면 결정하지 못한다. 따라서 EU가 기존 회원국을 위협할 정도의 대량 어획을 하는 사태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어업국이 북태평양 공해상 어선 수를 지금의 수준보다 증가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칙에 빨강오징어를 대상 어종으로 추가했다. 심해 산호 등을 지키기 위해 저층트롤 조업 금지 해역을 2개소로 늘리는 것도 결정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2월 28일자





신상품 ‘생선 햄버거’ 간단한 요리로 생선 식습관

籠清사(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는 2월 20일 신상품 ‘생선 햄버거’ 멸치, 참치 두 종류를 출시했다. 생선 먹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간단한 조리로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

그대로 먹어도 원료 본래의 맛을 느낄 수 있지만 따뜻하게 먹으면 더 맛이 돋보인다. 전자렌지나 프라이팬으로 조리 가능하다.

진공 포장 1팩에 120g이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4일이다. 희망 소매 가격은 부가세 별도 198 엔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3월 4일자

일본 올해 업무용 냉동식품 시장 6% 성장 전망 후지경제, 외식 등 회복 전망

시장조사 기업인 후지경제에 따르면 2020년 일본 국내 업무용(기업, 상점, 학교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 냉동식품 시장은 2019년 대비 11.5% 감소한 6,161억엔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외식 수요 등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다.

후지경제는 2021년 업무용 냉동식품 시장은 외식이나 중식(외부에서 사와 집에서 먹는 식사) 수요가 회복하는 등의 영향으로 5.6% 증가한 6,504억 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2월 25일자



일본 가다랑어 선어 양륙량 회복, 고등어 2배 수산청, 1월 양륙량 통계 발표

일본 수산청이 발표한 산지 수산물 유통 통계(전국 주요 48개 어항)에 따르면 올해 1월 주요 어종의 양륙량은 아래와 같다.

가다랑어 양륙량은 냉동, 선어 모두 부진했던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성어기 시작이 늦어진 고등어류는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했다. 날개다랑어 선어도 호조를 보였다. 한편, 정어리는 절반으로 감소했다. 명태 선어는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다. 살오징어는 선어가 60% 가까이 감소한 반면 냉동은 대폭 증가했다.

가다랑어 양륙량은 냉동이 75% 증가한 1만 8,000톤, 선어도 3.7배 증가해 240톤을 기록했다. 가다랑어 선어 평균 어가는 kg당 318 엔으로 55% 하락했다. 날개다랑어 선어 양륙량은 45% 증가한 2,300톤이었으며 어가는 kg당 314엔으로 34% 하락했다.

고등어류 양륙량은 지바·조시 2톤, 미야기·이시노

마키가 4,600톤 등 총 4만 4,000톤으로 지난해 대비 2.1배 증가했다.

오징어는 선어가 45% 감소한 280톤에 그쳤지만 냉동은 2.6배 증가한 450톤으로 대폭 증가했다. 어가는 선어 kg당 554엔, 냉동 kg당 667엔으로 각각 12%, 40% 하락했다.

정어리는 양륙량이 46% 감소한 1만 5,600톤에 그쳤으며 어가는 kg당 52엔으로 17% 하락했다. 명태 선어는 7,400톤으로 22% 감소했으며 어가는 kg당 70엔으로 2% 상승했다.

참다랑어는 선어, 냉동 모두 증가했다. 황다랑어는 선어가 40% 증가했지만 냉동이 대폭감소 했다. 눈다랑어는 선어, 냉동 모두 감소했다. 단가는 냉동 황다랑어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3월 2일자

러시아 명태, 일본에 임시 보관 보관 능력 한계, 해결 방안 일환

홋카이도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러시아 캄차카 지방의 블라디미르 소로도후 지사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따른 수입 제한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과 명태 제품의 임시 보관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보류관세 상태인지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를 거쳤는지는 불투명하다.

소로도후 지사는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인해 캄차카 지역의 모든 냉동 보관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에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는 그다지 큰 수량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제품 보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1년 3월 3일자



日 고등어 2020년 수출 베트남이 최대 시장 20% 증가한 4만 7천톤, 對日 「뼈 없는 생선」 용 수요

일본산 고등어의 2020년 수출량은 17만 1,283톤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이었던 베트남 수출이 20% 늘어난 반면 태국 수출은 10% 감소, 이집트 수출은 20% 감소, 나이지리아 수출은 3분의 1로 떨어졌다.

수출 총 평균 단가는 kg당 119 엔으로 1.7% 하락, 수출 금액은 203억 6,714만 엔으로 0.9% 감소했다. 베트남에 수출이 늘어난 것은 현지에서 뼈 없는 제품으로 가공해 일본으로 수출하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등어 수출은 2018년까지 4년 연속 사상 최대를 갱신했다.

그동안은 수출용 고등어 어획 거점인 지바현 조시시 초시 어항과 인접한 이바라키현 카미시시 하사키 어항을 중심으로 1마리 200~300g의 수출에 적합한 소형어 어획이 이뤄졌다. 이 사이즈는 일본 국내 양식용 생 미끼와 경합하지만 수출 쪽이 수익률이 높아서 동일 사이즈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었다.

고등어 수출이 급감한 것은 2018년 12월. 그해 가을과 겨울 신물 흥어와 고등어 통조림 인기로 일본 국내 수요 증가가 그 배경이었으며, 2019년도 지금까지처럼 어획이 이뤄진 경우가 적고, 위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수출이 감소했다. 2020년도 기본적으로 같은 수급 구조가 이어지고 특히 고등어 흥어와 어획 시기의 이월이 눈에 띄었다.

흥어에 따라 2020년의 수출은 주춤했지만 국가별로 보면 그해 최고인 베트남 수출은 4만 7,155톤으로 18% 증가했다. 베트남 수출용은 2019년에도 1.5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일본산 고등어에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주로 현지에서 뼈 없는 생선인 수리미와 생선 조립, 생선 구이로 가공되어 일본 시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베트남 수출 평균 단가는 전년 수준인 127 엔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 두 번째로 높고, 수출 금액은 59억 8,678만 엔으로 18% 늘었다.

한편, 2020년에 두 번째로 수출 물량이 많았던 태국 수출은 2만 8,385톤으로 11% 감소했다. 가격은 108 엔으로 2% 하락했고, 수출 금액은 30억 6,276만 엔으로 13% 떨어졌다. 2019년까지 주요 수출 대상으로 상위를 독점했던 아프리카 쪽은 많은 나라가 침체되었고, 2020년에 세 번째로 많았던 이집트 수출은 2만 480톤으로 21% 감소했다. 가격이 10% 상승했기 때문에 금액은 24억 8,428만 엔으로 14% 감소했다.

2019년에 수출량 1위였던 나이지리아 수출은 2020년에는 1만 5,707톤으로 전년의 3분의 1로 격감했다. 수출 금액도 19억 9,261만 엔으로 3분의 1로 떨어졌다.

2019년에는 전년의 약 5분의 1로 떨어졌던 가나 수출은 그에 대한 반작용도 있어서 2020년에는 1만 2,271톤으로 2.2배 증가했다.

또한 2019년에 수출이 부진했던 필리핀도 2020년에는 1만 2,049톤으로 3.5배가 늘었다. 기타 아시아 지역은 중국이 7,298톤으로 2배, 말레이시아도 4,461톤으로 2.1배 증가했다.

※ 기사 출처: 일본 수산경제신문 2020년 2월 15일자



노르웨이, MSC 대안으로 새로운 어업표준 개발 아이슬란드, 알래스카 등 다른 국가가 개발한 유사 프로그램 반영

노르웨이는 현재 지배적인 영향력이 있는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 프로그램의 대안을 업계에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책임있는 어업 표준의 최종 초안을 발표했다.

노르웨이 책임있는 어업 관리(Norwegian Responsible Fisheries Management, NRFM) 표준은 노르웨이 수산물 연구 펀드(FHF)의 자금을 지원 받아 개발되고 있다. NRFM 표준은 아이슬란드와 알래스카의 유사한 노력을 반영하여 노르웨이 특정 조건을 기반으로 노르웨이 어업의 지속가능성 표준으로 개발되고 있다.

Global Trust는 노르웨이 연구소 Nofima와 함께 주도적으로 알래스카와 아이슬란드를 위해 책임있는 어업 관리(RFM)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Nofima의 과학자 Marianne Svorcken는 최종 초안이 다음 단계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표준은 대구와 해덕대구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으며 이제 다른 어업으로 확장될 계획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3월 4일자

태평양제도포럼에서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5개국 탈퇴 사무총장 선출 문제로, FFA 탈퇴 징후는 없어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5개국, 팔라우,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키리바시, 나우루가 태평양제도포럼(Pacific Islands Forum)에서 빠져 나오면서 태평양 지역에 심각한 긴장감이 드리워졌다. 이 균열은 포럼의 새로운 사무총장 선출 때문이다. 태평양제도포럼은 이 지역 최고의 정치 및 경제 정책 기구이다.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18개국이 회원으로 있다.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에 개최된 포럼 지도자 회의에서 폴리네시아(오세아니아 동쪽 해역에 분포하는 수천 개 섬들의 총칭) 후보인 Henry Puna(쿡 아일랜드 전(前) 총리) 후보가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후보를 9:8로 제치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태평양제도포럼의 대표는 주요 세 지역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가 돌아가면서 맡는다는 오랜 신사협정이 있었다.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국가들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간과된다고 느끼고 있다.

팔라우와 다른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국가들은 그들의 후보인 마셜제도의 미국 대사 Gerald Zackios가 선출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패배 후 5개국은 일방적으로 포럼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5개국의 태평양수산위원회(FFA) 탈퇴 징후는 없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2월 11일자



아이슬란드 대구 가격 급락

수요 지속 약세 및 공급 강세, 업계는 긍정적 입장 유지

아이슬란드산 대구 가격은 좋은 어획과 식품서비스 분야의 수요 감소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들은 새로운 시장의 성장과 소매 판매 강세가 대구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올해 연초부터 2월 15일까지 아이슬란드 경매에서 신선 대구 원물(ungutted)의 평균 가격은 kg당 2.08 유로(2.5 달러), 내장 제거는 kg당 2.17 유로(2.6 달러)로 지난해 평균 가격 대비 각각 17%, 26% 하락했다.

아이슬란드의 2020-21 대구 쿼터는 25만 4,273 톤이며 벌써 쿼터의 50%가 소진되었다. 아이슬란드의 어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8월 31일이다. 아이슬란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아이슬란드 선박이 어획한 대구는 총 2만 2,853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아이슬란드 대구 공급 업체인 Niceland Seafood사의 대표인 Heida Kristin Helgadóttir는 『시장은 여전히 식품서비스 분야의 판매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구 가격은 식품서비스 분야의 불안정한 기조로 인해 낮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압박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식품서비스 부문이 언제 회복될지 불분명하지만 소매 판매 강세가 대구 가격 강세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서비스 판매망이 폐쇄되면서 아마 남유럽 대구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지난해 스페인 시장에서 대구 거래량은 17% 감소, 가치는 16% 하락했다.

아이슬란드의 흰살 생선 공급 업체인 IceMar의 대표인 Gunnar Orlygsson은 『대서양 대구는 위

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의 식품서비스 공급망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어 수요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기존 재고에 신규 어획되는 물량이 추가로 공급되어 공급 측면에서도 압박이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은 약세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rlygsson 대표는 다른 대서양 대구 시장, 특히 북유럽, 중부 유럽, 미국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봤다. Orlygsson 대표는 『적어도 대서양 대구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유럽 시장 문제와 바렌츠해 대구 쿼터의 대폭 증가로 인해 가격이 더 떨어질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Orlygsson 대표는 다른 시장에서 초과 공급 물량을 일부 흡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예를 들어 대서양 대구는 태평양 대구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를 대신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 대구 어획량은 2021년에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서어류 포럼(Groundfish Forum)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과거 몇 년 동안 자원 문제로 대구 총허용어획량(TAC)을 급격히 감소시킨 영향으로 2021년 대구 총생산량을 36만 5,000톤 정도로 예상했다.

Orlygsson 대표는 러시아가 대서양 대구 소비를 늘리고 있으며 아시아 시장도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2월 21일자



그 저녁바다

이 정 하

아는지요?
 석양이 훌쩍 뒷모습을 보이고
 그대가 슬며시 손을 잡혀 왔을 때,
 조그만 범선이라도 타고 끝없이 가고 싶었던
 내 마음을.
 당신이 있었기에 평범한 모든 것도
 빛나 보였던 그 저녁바다
 저물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석양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지요?
 발길을 돌려야 하는 우리 사랑이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것이
 내 가장 참담한 절망이었다는 것을.
 저무는 해는 다시 떠오르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다시 그곳을 찾게 될 날이 있을까.
 서로의 아픔을 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대로 영원히 영원히
 당신의 가슴에 저무는 한 점 섬이고 싶었던
 내 마음, 그 저녁바다를.



2021 해양수산전망대회, 부문별 전망

원양어업, ‘공정’·‘해양생태계’ 가치 커진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장영태)은 지난 3일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수산물 생산량은 380만톤, 어가소득은 547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분야별로는 일반해면 어업이 전년대비 소폭 늘어난 94만톤, 원양어업은 전년수준인 43만톤, 양식어업은 전년대비 3.5% 늘어난 239만톤으로 예측됐다.

<원양산업 동향과 전망/ 정명화 KMI 원양산업 연구실장>

지난해 지역수산기구에서는 참치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관할 해역에서 서식하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논의가 구체화됐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는 상어, 가오리, 바닷새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영킹 패드 사용이 의무화됐고,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생분해성 패드 사용을 권고했다. 그리고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는 관할수역의 보존관리 조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픈서버 커버리지를 상향했고,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는 유기, 유실 또는 폐기된 어구에 관한 조치를 마련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지만 국가 간 봉쇄가 전격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인적, 물적 이동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21년 원양산업의 생산량은 43만 톤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에서 다소 회복됨에 따라 원양어업의 수출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원양어업 혁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올 1월 전자모니터링을 장착한 원양어선이 남태평양으로 출항했다. 해당 시범사업

으로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데이터 은행을 통해 축적하고 해당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원양어선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다. 우리나라가 선진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양어선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안전펀드를 활용해서 어선 신조가 이뤄지고 있다. 채낀기, 봉수망어선 이외에도 연승에서의 신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근로시간 준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양어선의 자동화 기계화에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원양어선의 자동화, 기계화를 위한 업종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어선의 표준선형 개발과 지원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연구와 실천이 요구된다.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 등 선진국 발 규범 확대가 예상된다. 국내 원양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역별·업종별 해양생물과 어업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이들 해양생물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법제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수산기구에서 요구하는 생분해성 어구의 실용화, 그리고 업힘 없는 패드 사용에 대응해서 국내에서도 어구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쿼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해서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범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의 미래, 국민과 함께 만든다.



해수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21~’25)’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1~’25)」(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2일(화) 발표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국내외 환경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수산업·어촌 부문의 중장기 발전 목표와 수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계획이다.

지난 2016년 「제1차 기본계획(2016~2020)」 수립 이후 수산업과 어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하였으며, 주요 선진 국가들은 기후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안전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업도 이러한 여건 속에 친환경 생산체계로의 전환과 소비자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재편, 어업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어촌공간의 재구성 등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수산업·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①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②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식품 공급, ③ 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④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⑤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5대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3대축인 연근해, 양식산업, 원

양산업 중 원양산업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원양어선을 새로 짓고, 해상원격의료 지원 등 원양어선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국제 읍서버의 무 승선을 확대하는 등 지역수산기구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원양어업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불법어업(IUU) 관리를 추진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수산자원 조성 기여 등 국제공조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원양어업 전자모니터링(EM)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양식업의 환경·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자원 모니터링, 혼획저감 조치 등을 개선한다.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불법어업 모니터링과 관리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 ODA 전담기구를 선정하고 민간 참여형 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연안국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원양산업노조 신임 위원장에 박진동 사무처장 선출

원양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및 역동적 노조로 거듭날 것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이하 원양노조)은 2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원양선원회관(부산시 서구 원양로191) 4층 대회의장에서 '2021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박진동(62) 사무처장을 제16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원양노조는 지난해 11월 염경두 당시 위원장의 별세하면서 공석이었던 위원장 선거를 이번에 실시했다. 이번 위원장 선거에는 박진동 사무처장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이날 투표에 앞서 상선원과 어선원 간의 제도적 차별 조항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정견발표를 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이날 선거에서 19명의 참석 대의원 중 16표를 얻어 선출되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3년간 원양노조를 이끌

게 된다. 박 위원장은 "오직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집행부가 한단계 더 도약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고 역동적으로 조합을 이끌어 나갈 것은 물론, 현장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원양노조는 이날 원양어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임금구조 개선 요구 등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며 새로운 집행부의 각오와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방제를 위해 참석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모든 의전 행사 없이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발열체크와 출입명부 작성,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대회를 마쳤다.

다양한 선박검사 법령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해수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월 10일부터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10일(수)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https://law.komsa.or.kr>)'은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정보를 선박의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달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만 72개, 행정규

칙은 66개에 달하는 등 검사 관련 규정의 종류와 양이 방대하다. 이 때문에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 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선박검사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원양선박 선원 여러분, 아플 땐 원격의료 받으세요!

올해 총 120척(신규 20척) 대상 해양원격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양선박 선원을 위해 위성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의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올해 총 120척(신규 20척)으로 확대 제공한다.

* (2015~2019) 선박 80척, 선원 1,912명 → (2020) 100척, 2,428여명 → (2021) 120척, 2,800여명

원양선박 선원들은 먼 바다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해양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와 위성통신, 원격의료장비가 설치된 선박 간 원격의료를 통해 선원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응

급상황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왔다. 작년에는 총 100척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원양선원 2,391명에게 12,175건*의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선상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도 2회 실시한 바 있다.

* 2020년 원격의료지원 서비스 : 응급처치지도 1,029회, 건강상담 10,405회, 의료자문 741회

올해는 해양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대상선박 선정 기준*에 따라 지난 2월 26일에 신규 대상선박 20척을 선정하였으며, 3월 2일부터 지난해 대상선박 100척과 함께 총 120척 선박의 원양선원 2,800여 명에게 응급처치 지도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및 가벼운 질환(소화기, 피부 등)에 대한 건강 상담 등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총 250억 원 규모 수산펀드 조성한다

2.26.~3.31. 신규 수산펀드 운용사 2개사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총 25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2월 26일(금)부터 3월 31일(수)까지 신규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수산펀드를 조성해 왔다.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 자본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는 수산펀드는 약 8년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산 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회수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작년까지 13개 수산펀드를 조성하고 1,025억 원을 수산 기업에 투자해 왔으며, 수산펀드의 신규 결성 규모를 대폭 증대하고 창업 지원에 특화된 펀드를 신설하는 등 수산펀드의 기업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다. 이를 통해 2010~2018년에 연평균 153억 원 수준이던 신규 수산펀드 규모가 2019~2020년에

는 각각 350억 원, 300억 원으로 약 2배 이상 큰 규모의 수산펀드가 결성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작년에는 신규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수산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특화된 ‘수산벤처창업펀드’를 최초로 조성하였다. 그간 조성되어 왔던 수산펀드의 투자대상은 수산분야 전(全) 기업이었으나, 수산벤처창업펀드는 벤처·창업기업, 신기술 활용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특화 펀드이다.

올해는 수산일반펀드와 수산벤처창업펀드를 각각 150억 원,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산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www.apfs.kr)이나 문의처(02-3775-6771, 677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원노련, “선원의 일상회복에 역량 총동원하겠다”

정기전국대의원대회서 결의...모바일로 안건 투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2021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3차 유행의 영향으로 외부인사 초청, 시상식 등 모든 의전행사를 취소는 물론, 대면으로 진행해오던 대의원의 출석 방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온라인 투표시스템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대의원 131명 중 122명이 투표에 참여해 93.13%의 투표율을 보였고, 각 안건에 대해 평균 91.8%의 높은 찬성율을 나타냈다.

정태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부득

이하게 전국의 대의원 동지들이 한 자리에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치르게 된 것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투표 결과로 모아진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2021년 사업계획을 흐트러짐 없이 힘차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 위원장은 “선원노련은 모든 선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일상을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법 개정 △금어기 및 휴어기로 인한 실직어선원의 생계지원과 복지 대책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선원 노동자의 지원 △장시간 노동, 고정급 시간외근로수당제 폐지 등 선원법 전면 개정 △어선원의 노동권 보호와 가맹노조 단결 △인천국제선원복지회관 이전 △원양역사관 건립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적부원 일자리로 취업난 극복하세요!

신규 국적부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양질의 선원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국인 선원의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200명의 국적부원 양성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국적부원 양성사업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선사로부터 구인 수요를 받은 뒤, 국적부원이 되고자 하는 구직자를 모집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부산, 여수 등에서 총 3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140명의 신규 국적부원이 선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올해는 200명의 신규 국적부원 양성을 목표로 채용박람회를 총 4회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채용박람회는 3, 5, 8, 10월에 진행될 예정인데, 일정

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채용박람회 외에도, 국적부원 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만 40세 이하라면 경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직접 제출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센터 누리집(www.koswec.or.kr)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지원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고용지원부(☎051-996-3639)에 문의하면 된다. 채용 대상자에게는 2~6주의 교육기간 동안 기초안전교육(5일), 선박보안교육(1일) 등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육비와 신체검사비 등 부대비용, 취업준비금 50만 원(최대 3개월), 장기승선장려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승선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승선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진무	최경삼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신현애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박설진 과장	589-1605	회계경리, 운영예산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기획홍보부	이성재 이사	589-1607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8	기획자금, 생산통계
	김영수 과장	589-1609	홍보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9	무역제도, 수출통계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검직)
		최봉준 대리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사원	589-1614	참치선망·연승
-	해외협력 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북양, 콩치
		최동환 주임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부산지부	-	이형균 이사	(051)	총괄
	-	김현애 과장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051	차량계량
		이동주 팀장	253-3391	차량계량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비고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 OFIS, 해외투자, 행정
		이재영 행정관	044-868-7837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기	
국제협상지원팀	-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對 일본 업무
-	-	김수민 전문관	044-868-7863	일반/지역수산물기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	-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통계, 협의회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관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남아공모잠비크	정연국	27-71-285-4131(+82-10-5353-7135) ygieong21@naver.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31호

발행 : 2021년 3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